금주의 기도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며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일이지만 때로 죄 된 심사가 어쩔 수 없이 드러남을 회개하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구원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 28-19절)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11월 18일 (토) 제 1659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과 나눔 실천한다!

2017년 추수감사절 맞아 미국역사 속에 드러난 추수감사절 의미와 적용

올 한해 국내외에서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대안 보수주의라는 이름으로 백인 우월주의 대두, 흑백 인종 갈등, 무자비했던 허리케인 하비, 라스베이거스와 텍사스에서의 총기 대량 살상, 그리고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탈출, 한반도에 전운을 감돌게 한 북한 김정은의 미사일 위협… 주변을 돌아볼 때에 감사할 요소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망과 비탄, 상실이 넘친 한해인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준비"로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 세일업체들은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 있고, 비록 줄을 서고 몸싸움을 해야지만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오프라인 업체들도 일년중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기를 대비하고 있다.

오는 23일은 추수감사절이다. 이 땅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길 아래 이뤄지고 있음을 감사하는 날이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에서 유래됐다. 1620년 9월16일 박해 받던 102명의 청교도들은 종교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했다. 이들은 65일간의 항해 끝에 그해 11월20일 미국 땅에 상륙했다. 항해 도중 무려 44명이 목숨을 잃었다. 신대륙에서 청교도들은 인디언의 도움으로 파종했고 이듬해 첫 수확을 거뒀다. 수확을 기념해 이들은 축제를 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놓지 않았던 것이다.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수확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한 해 동안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려는 나눔의 절기로 자리 잡았다.

거의 400년 전부터 미국인들은 추수감사절을 지켜오고 있다. 날짜는 이리저리 변경됐지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의미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예식이었다기보다는 일종의 축제였다. 현존하는 사료에 따르면, 아메리카원주민들은 3일 동안 청교도들과 어울리면서 레크리에이션을 즐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확과 사냥으로 물자가 풍족한 필그림이 원주민에게 동냥하거나 선심 쓰듯 음식을 베푸는 그런 초대가 결코 아니었다.

필그림들은 옥수수, 호박, 콩, 보리를 수확했다. 또 오리나 거위 같은 철새가 날아들어 네 명의 건장한 성인이 몇 시간 만에 일주일 치 식량의 새를 사냥했다. 이런 음식은 원주민이 사냥해서 가져온 다섯 마리의 사슴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일방적인 접대라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음식을 장만해서 함께 나누는 잔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이다.

추수감사절은 19세기에 정착됐다. 조지 워싱턴이 선포한 감사절은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연방헌법을 제정하고 연방정부를 수립한 일을 감사하기 위한 일회성의 조치였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1863년에 미국 내전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폐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감사절을 선포했다. 바로 전쟁의 환난 속에서 미국의 인구와 경제를 성장시켜 주고 자유를 확대시켜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고 했다:

"이제 나,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준수하고자 한다. 나는 미국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선한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드리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이처럼 링컨 대통령의 선포로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전통으로 창안되고 미국의 시민종교가 됐다. 그 후 1939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샤핑 일수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상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목요일로 한 주일 앞당겼으나 국민들은 종전대로 마지막 목요일에 축제를 지냈다.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1년, 마침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추수감사절을 11월 넷째 목요일로 환원시켜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은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2대 국경일이다. 전국 각지에 흩어졌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며 한 해 동안의 노고와 수확의 열매를 감사한다.

〈14면으로 계속〉

"sunset glow"

Annie Lee (이화여대 서양화가 졸업, e Banner 디자인 대표)

작품노트: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같이 매일 매일의 삶으로 이어진 한 해를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하며 저녁노을의 기쁨을 나눈다.

감사절 시

11월의 기도

백 승 철
(시인, 평론가, 에피포도예술인협회 대표)

나뭇가지에 한 잎 낙엽
바람에 힘겨워 고개 숙인채로
흩날리는 계절에
두 손으로 하늘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되게 하소서

헐벗은 나무 사이로
바람은 시냇물 소리 내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나무에
이른 봄을 회상하며
감사의 열매로 기도되게 하소서

여기까지, 이른 아침은
눈으로 확인 할 수 없는
이슬 먹고 자란 들 판을 추수하며
농부가 노래하는 소리로 텅 빈 이 공간을 수놓을
넉넉한 마음이 기도되게 하소서

없는 것에 고개 돌리지 말게 하시며
있는 것으로 입술 열어 아름다운 곡조 되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오늘 하루 내일 수북이 흰 눈으로 쌓여
세상 덮는 감사가 눈물로 기도되게 하소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시론** 민경엽 목사

3면 **감사절 설교** 장영춘 목사

7면 **종교개혁 500주년** 조진모 목사

8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14면 **인/터/뷰** 린디 박 대표

이정근 목사 저서

목회자의 최고 표준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The Paradigm For Pastors -함생목회론을 말한다-

이 책을 추천하신 분들의 의견 모음

- 예수 그리스도를 주역으로 한 목회교과서이다.
- 글로벌시대의 인류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적 신학작업이다.
- 바른 목회가 무엇인지 목회의 정석이 한 눈에 들어온다.
-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대헌장과 목회대명을 다각적으로 풀어 놓은 목회교범이다.
- 지성과 영성의 앙상블을 이룬 목회자적 신학자의 투명한 목소리이다.
- 1,500 여개의 목회명언이 부록에 첨가된 지혜서이다.
- '신학 있는 목회, 목회 있는 신학'의 기치를 걸고 실험목회를 해 온 자기투쟁의 기록이다.

책 쓴이 소개

성결교회 목사. 서울 사대에서 문학사/교육학석사, 미국에서 기독교교육학 석사, 목회학 석사, 목회학 박사 취득. 철학박사과정 수학. 미주동아일보 기자. 세계한인기독언론인협회 창설회장, 로스앤젤레스에서 유니온교회 개척하여 30년 목회 후 은퇴.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월드미션대 대학원장, 아주사신대원 겸임교수, 풀러신대원 목회학박사 논문지도교수, 미성대 창설총장. 미주성결교단 총무 및 총회장, 조각글 작가. 코리안의 노래 작사, 함생주의 사상 주창자.
저서: 기독교교육개론, 기독교교육신학논문집 3권, 조각글집 17권 등.

구입처 LA Joy Books & Supply
(800) 662-7282, (213) 380-8793 Fax (213) 380-8792
621 S.Virgil Ave.#410, Los Angeles, CA 90005

"아직도 이 책이 없으신가요? 성도님들이 교역자님들에게 선물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책값이 부족한 해외목회자님들이 계시면 연락 주세요. 송료만 부담하시면 기증하여 드리겠습니다."

시 론

성경책 주심에 감사!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저 안에 태풍 몇 개/저 안에 천둥 몇 개/저 안에 벼락 몇 개/저게 저 혼자 둥글어질 리는 없다/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저 안에 땡볕 두어 달/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장석주 〈대추 한 알〉 시간은 무심히 흐르고 계절은 저절로 바뀌지만 사람의 일에는 저절로 되는 일이란 없다. 무수한 세월 노력하고, 참고, 견디어야 하리라.

매년 맞이하는 종교개혁의 계절이지만 올해는 500주년이란 것 때문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다가 오늘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 과거에 어떤 노력, 어떤 희생,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었다. 목사의 집이니까 내게는 이십 권 남짓한 성경책이 있다. 한글로 된 성경책만도 얼추 보니 거의 열권에 이른다. 종류별로 다 있다.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깔려 있으니 식구 수만큼 더 있다. 같은 종류의 지금은 보지 않는 옛날 성경만도 여럿이니 이 정도면 지천에 깔린 게 성경이랄 수 있다. 웬만큼 열심 있는 성도라면 성경책은 한 사람당 두어 권씩 없는 집이 없으리라. 이 성경 한 권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종교개혁가들의 목숨이 사라졌는가!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류와 부수의 성경책을 인쇄하고 있는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성경을 들여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수고하였는가!

14세기 영국의 존 위클리프는 성경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보통 사람들에게 성경을 직접 읽고 연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누구라도 겸손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올바르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농부나 장인이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성경 번역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상황에서 옥스퍼드의 학자들과 함께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경을 1382년 영어로 번역하였다. 이에 분노한 로마 교황청은 그가 죽은 지 44년 뒤에 그를 이단으로 판결하고 무덤을 파헤쳐 부관참시하고 그의 뼈를 태운 뒤 강물에 쏟아 붓는 만행을 저질렀다.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16세기 초에 살았던 윌리암 틴데일이다. 그는 7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위해 유럽을 떠돌며 비밀리에 작업을 했고 기존에 없던 단어들도 새롭게 만들었다. 그는 라틴어가 아닌 히브리어, 헬라어 원전을 직접 번역하였다. 킹제임스 성경 영어판의 70% 정도가 그의 번역에 근거하였다. 그는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화형을 당하였다. 이들의 희생으로 거대한 마그마가 끌어올라 종교개혁이라는 화산이 폭발하여 세상이 뒤집어졌다.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진 스코틀랜드성서공회 소속의 존 로스 선교사는 1878년 마가복음을 번역한다. 이는 우리말로 된 최초의 성경이다. 그는 1876년 중국에서 한글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헤매다가 청나라와 한약재를 무역하며 한문과 만주어에 능통한 지식인 이응찬과 연결되었다. 당시 서양인을 돕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절대로 아는 척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아 아직 믿지도 않는 상태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하였다. 그런데 어떤 불량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협박하며 돈을 뜯어서 그는 도망치고 말았다. 그러다가 1879년에 다시 로스 선교사를 만나 예수를 영접하고 조선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세례를 받았다. 이 외에도 당시 로스 선교사를 도와주며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번역을 도와준 이들이 백홍준, 서상륜, 김청송과 같은 이들이다. 그들이야말로 한국 초대교회사에 별같이 빛나는 존재들이다.

한국에 천주교는 개신교보다 100여 년 전에 들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세가 개신교의 1/3수준인 이유 중 하나가 성경을 보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연세대학교 백낙준 교수는 천주교회에 대해서 "1784년 이승훈이 교회를 창설한 이래 1866년까지 82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동안 쪽복음서 한 권이나 성경의 어느 한 부분도 번역하려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로 입국할 당시 이미 평안도 의주 지역에 100여 명(백홍준 전도), 서울 지역 300여 명(서상륜 전도)의 세례 지원자가 있었고, 만주 집안 지역에는 한인교회(김청송 전도)가 존재했었다.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성경이 번역되었고, 그 성경이 쪽복음 형태로라도 팔렸고, 그런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과거사가 엄존하는데 오늘 한국교회에는 성경문맹 때문에 제 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소리가 드높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성경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소유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소중한 유산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더욱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것을 다짐해본다.

빈번한 총기 사건, 그러나 규제는 요원하다!

WP, 정치학자들 통해 미국내 잦은 총기 대량 살상사건에도 총기 규제가 힘든 이유 밝혀

지난 몇십년 동안 갈수록 많은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을 충격에 빠트렸다. 폭력조직 사이의 영역 다툼에서 비롯된 총격전이나 가정 폭력에 총기를 사용해 참극으로 끝나는 사례는 줄었고, 우리가 어느덧 익숙해진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그 자리를 메웠다. 컬럼바인, 오로라, 버지니아텍, 뉴타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에마뉘엘 AME교회, 올랜도의 펄스나이트클럽. 주요 사건이 일어난 곳만 나열해도 이렇다. 이번에는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에 있는 제일침례교회가 참극의 현장이 됐다.

이대로 가면 어디서든 끔찍한 참극은 반드시 또 벌어지고 말 것이다. 지난 2015년 에리가 체노웨스가 밝혔듯이 총기 난사 사건이나 테러 공격은 모방범죄로 쉽게 이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워싱턴포스트(WP)는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치학자들이 어떤 분석을 내놓았는지, 그동안 WP 지면에 소개된 주요 질문들을 중심으로 정리해준다(What political science can tell us about mass shootings).

인종문제 불만 많은 백인 총기소유 찬성 · 공화당 정체성과 관련 높은 가치들과 연동

미국은 너무 폭력적 사회...정부 불신, 극도의 개인(주의) 자유 중시 성향에서 비롯

Q:총기난사 사건이 자주 일어나면 총기 규제의 당위성이 높아지고 총기를 규제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을까?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적절한 총기 규제가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으리라는 의견이 나오고 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진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의 교회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난 뒤, 데이비드 포르투나토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총을 지니고 무장한 상태였다면 총기난사범을 제압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하는 이들의 주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바 있다.

대니 헤이예스는 지난달 라스베이거스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 이후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여론의 관심과 주목에 따라 그래프로 설명하기도 했다.

58명이 숨지고 546명이 다친 라스베이거스 테러 이후, 많은 정치학자들은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가까이 살수록 총기 규제를 지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미국처럼 영토가 광활한 나라에서 총기 규제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총기난사 사건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뜻이 된다.

매튜 라콤브는 전국총기협회(NRA)가 어떻게 회원들을 동원해 정치적인 발언권을 높였는지 분석한 칼럼에서 전국총기협회가 총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종의 사회적 정체성을 심어줬다고 썼다.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하나의 이상적인 이데올로기로 미화한 건데, 총기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보다 애국자이고 자유를 지키는 누구보다 의로운 시민들로서 사회에 혼란을 가중하려는 급진주의자들과 엘리트주의자들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Q: 총기 소유에 찬성하는 견해와 백인들의 인종적 편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알렉산드라 필린드라는 인종문제에 불만이 많은 백인일수록 총기 소유를 찬성하며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고 말한다. 다만 백인들이 흑인의 공격이 두려워 자신을 지키고자 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Q: 총기 문제는 언제부터 두 주요 정당의 의견이 갈려 정치적 쟁점이 됐나?

총기 소유에 관해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보편적인 공감대가 존재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 올해 초 마크 조슬린과 도널드 하이더마르켈이 이를 잘 설명해줬는데, 지금은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공화당은 대체로 총기 규제를 저항하는 편에 서 있다. 물론 지난달 초 스티븐 밀러가 지적했듯이, 공화당원 가운데도 핵심적인 총기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한 의원들이 꽤 많다.

조슬린과 하이더마르켈은 총기에 관한 문화가 점점 공화당의 정체성과 관련이 높은 가치들과 연동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썼다. 총기를 소유한다는 건 강력한 개인주의나 정부에 대한 불신,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중시하는 성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Q: 미국에서 유독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총기 사고가 잦은 이유는 무엇일까?

브라이언 필립스는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외로운 늑대의 공격과 테러 조직이 계획한 공격 가운데 어떤 공격이 더 참혹한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봤다. 결과는 나라마다 달랐는데, 미국은 독특하게도 개인이 감행한 공격이 테러조직이 계획한 공격보다도 훨씬 잦았을 뿐 아니라 사상자도 더 많았다. 키에란 힐리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다른 선진국과 미국을 비교하며 간단하고도 분명한 결론을 내렸다. 한마디로, 미국은 너무나 폭력적인 사회라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에 희생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이유도 간단하다.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총기류를 사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다. 힐리는 이렇게 썼다:

"무기는 원래 쓰임새가 목표 대상을 해치는 용도다. 무기로 쓰기에 무기만큼 효과적인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무기를 구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트럭을 비롯해 다른 여러 가지 물건을 무기로 변용해 쓰려 하지만, 그 효과가 무기만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알림: 다음호는 추수감사절로 휴간합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www.rptseast.org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학 과 ●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문의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감사절 설교

시편 50편은 다윗왕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책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긴 레위 지파 사람 아삽의 시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외부적 의식만을 강조하여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엄히 책망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의 바른 생활과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한 자입니다.

본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세상의 모든 백성을 불러 공의로운 심판장으로서 심판하실 것을 서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을 그의 심판대 앞에 모으시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나의 성도를 네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의 성도"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출19:5, 24:1-22). 또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모든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히8:10-13, 13:20).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지 아니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지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피 있는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가졌습니다. 이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기 위하여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듯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여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은 우리의 의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데 신실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 하는 데서 속량하여 주셨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양떼같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는 그들이었지만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시136:1) 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피로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을 삼으신 성도는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열납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7-13절의 내용을 보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때마다 풍부한 제물을 드렸고 각종 절기에는 성전에 나아가 희생 제물을 드리며 율법의 규정대로 충실히 지켰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제사 의식에 있어서는 전혀 책망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제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7, 8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자기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적으로는 훌륭한 제사를 드렸지만 내적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의무적 의식을 거행하는 데만 열심이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 마음 깊은데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감사가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수소의 피를 마시겠느냐"(9-1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며 인간이 바친 제물을 먹고 피를 마시는 분이 아니심을 시사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제물을 바치도록 율법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제물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감사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제사로 언약한 성도들과 진실된 교제를 가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본문 16-2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위선적인 생활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각종 죄악을 일삼고 있음으로 그들이 그러한 죄악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께서 열납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희생의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와 실생활에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형식적이고 의적인 의식만을 갖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열납하지 않으십니다. 죄악 된 삶을 살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예배를 열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롬12:1).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먼저 지은 죄를 자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바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본문 14-15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참된 제사는 외형만 갖춘 제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깃든 제사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을 갚으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의 표시로 어떤 일을 하기로 서원하여 드리는 제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제사를 통해 예배자가 가지게 되는 마음의 결심이나 다짐을 실생활에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을 뜻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서원한 것을 이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열납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은 진정한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감사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제사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레위인들 중에 수천 명의 찬양대원을 세우고 아삽으로 하여금 그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통은 솔로몬 시대를 거쳐 히스기야 시대,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갔으며 모든 예배를 감사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성일을 지키는 무리들의 시온을 향하는 축제의 행렬은 기쁜 소리와 감사의 노래로 하늘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시42:4, 95:2, 100:4).

시편 69편 30-3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사도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8)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감사하라'고 명령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솟아 나와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감사는 나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감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가능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해 있다는 증거 입니다. 감사는 참된 성도의 의적 증거입니다.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4. 감사하는 성도가 받는 축복.

본문 15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환난 날에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감사 제사를 드리는 참 예배자는 환난의 날에 그 환난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뿐임을 굳게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노라면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환난의 날이 우리 앞에 닥칠 때, 별이 안 보이는 캄캄한 날이 닥칠 때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처럼 가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환난의 날에, 병고의 날에, 좌절의 날에, 실패의 날에, 심판의 날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히스기야왕은 죽을병이 걸렸을 때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여 그 생명이 15년을 연장 받았습니다(왕하20:1-7).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범죄하여 큰 풍랑을 만났으나 물고기 배 속에서라도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욘1:17-2:1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환난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불안과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자가 있습니까? 병고에 시달리는 자가 있습니까?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는 자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부터 드리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악에서 구속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환난 날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구원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시20:1-2).

2017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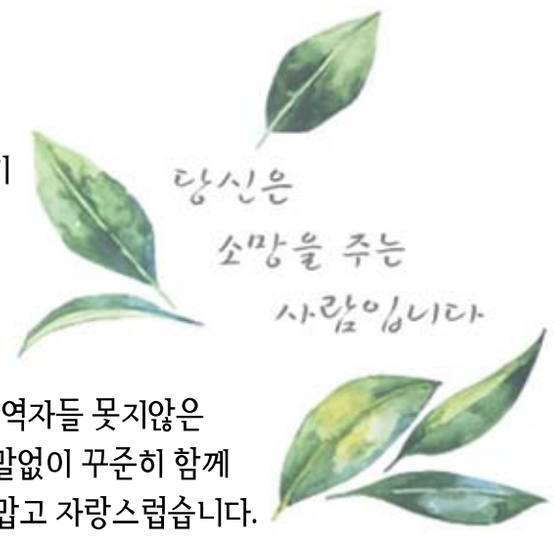
후원 감사의 밤

· 초 · 대 · 합 · 니 · 다 ·

□ 일 시: 2017년 12월 10일(주일)오후 6시
□ 장 소: 늘기쁜교회(김홍석 목사 시무)
61-51 Fresh Meadow Ln, Fresh Meadows, NY 11365
□ 문 의: 646-270-9771, 917-656-0176
www.breadngospel.drg

Bread and Gospel Eastern America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초청의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사역에 동참하여 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사역에 동역해 오신 후원자 가족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느 선교 사역자들 못지않은 아름답고 훌륭한 사역자들입니다. 말없이 꾸준히 함께 사역해 오신 여러분들이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한해를 보내며 여러 후원자 가족 분들과 이 사역에 관심 있는 이웃들을 함께 초청하여 사역의 열매들을 서루 나누고 우리의 정성이 담긴 작은 만찬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꼭 오셔서 서로를 격려하고 새해의 사역을 함께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후 2017년 11월 1일

회장 유 상 열 목사 사무총장 전 희 수 목사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무릎으로 하는 애국

'사즉생 생즉사'라는 말이 있다. 죽음을 각오하면 살고 살려고만 하면 죽는다는 말이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지만 살려고만 하는 사람은 사명도 완수하지 못하고 도리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다. 한번밖에 살수 없는 우리 인생인데 깊이 곱씹어보아야 할 말이다. 요즈음 사명얘기를 참 많이 한다. 우리 성도들도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명으로 사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셨다. '나는 이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사명을 깨닫고 나서야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명선언이다. 사명감은 오늘 내가 여기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게 된 것임을 깨달음으로 시작된다. 말하자면 오늘 이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보내어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 보냄을 받아서 여기에 살게 된 것이다.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난 생명체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께서 그 무언가를 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그냥 우연히 왔다는 인생과 사명때문에 보냄을 받아왔다는 인생과는 그 삶의 질이 다르다. 우연하게 이 땅에 왔다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기분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러나 만일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보내진 것이라면 그리고 그 무엇을 하라고 이 곳에 보냄을 입었다는 그런 의식이 있다면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60이 넘어서면 두뇌기능이 상실되기 시작한단다.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는 내가 왜 여기 올라왔지 망설이고 냉장고를 열고서는 내가 왜 냉장고를 열었지? 망설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벌써 치매증상이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사는지 모르고 산다. 돈도 열심히 벌고 명예와 권세도 얻으려고 열심히 싸운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놓고 명예와 권세도 많이 누리고 산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뒤늦게 헛살아온 인생을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영적인 침해증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에서 일을 하든지 인생의 목적의식 사명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사실 이 사명감으로 살아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에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고통을 이겨내는 능력이 샘솟게 되는 것이다. 사명감으로 살아야 죽음조차 극복하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총회임원들과 노회장 연석회의를 참석하고 우리 교우들을 인솔해서 러시아 선교학습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런데 총회임원들과 노회장들이 탄 차를 봉사하신 장로님이 국민일보에 나온 글이라면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전해주었다. 비행기 조종사 한 사람과, 정치하는 국회의원 한 분 그리고 목사님과 어린 학생 네 사람이 경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경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그만 추락하게 되었다. 급히 낙하산을 펴고 뛰어내려야 할 위급한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그 비행기에는 낙하산 들어있는 구명조끼가 3개밖에 없다, 사람은 4명이 탔는데 낙하산 구명조끼는 3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자 먼저 조종사가 내가 시범을 보일 테니 잘 보라고 하면서 서둘러 낙하산 구명조끼를 메고 뛰어내렸다. 그러자 옆에 있던 국회의원이 나는 국회에 빨리 가서 투표해야 한다면서 옆에 있던 두 번째 구명조끼를 황급하게 메고는 뛰어내렸다. 이제 구명조끼 하나를 남겨놓고 목사님과 어린 학생 두 사람이 남아있다. 그러자 목사님이 학생에게 이렇게 말한다. "학생!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인생도 살만큼 살았고 학생은 앞으로 살날이 더 많으니 그 남은 구명조끼를 어서 메고 뛰어 내려라! 그러나 학생, 학생은 살아서 꼭 예수 믿어라" 그러셨다. 그러자 그 하나 남은 구명조끼를 바라보던 학생이 "어? 목사님 우리 둘 다 살았어요! 아까 그 국회의원이 황급하게 구명조끼를 메고 간다는 것이 내 책가방을 메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 구명조끼가 이렇게 두 개가 남았어요!" 하더란다. '사즉생 생즉사'라는 말! 죽음을 각오하면 살고 나 살려고만 하면 죽는다는 말이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도 불사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사명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다. 직업이야 다를 수 있어도 크리스천의 공통적인 사명 바로 전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가족과 친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자고 전도하고 있다면 그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어느 가정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은 항상 있다. 자녀를 볼 때도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집안을 들여다봐도 문제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런 가정에 남편으로 아내로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명자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해야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입으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사명인간이다. 이 가정으로 나를 보내 세워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받는 가정으로 성업해주신다. 사업이 좀 어려워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그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시인하고 기도하고 힘쓰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케 성업해주실 것이다. 기업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성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revpetergang@hotmail.com

복음 집중하는 "지루한(?)" 교회에 사람이 모인다!

처지리더스.컴, 라이프웨이 전도 관련 설문조사 분석

아마존에 '전도(evangelism)'를 검색하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전략을 제공하는 책들이 적잖이 나와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전도 전략은 꽤 간단하다.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다른 단체들('Billy Graham Center'와 'Caskey Center for Church Excellence')과 협력해서 전국적으로 작은 교회 1,500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When It Comes to Evangelism, the Small Things Really Matter).

"그때 내 옆에 없었던 하나님(The God Who Wasn't There)"으로 잘 알려진, 조수아 피이스(Joshua Pease)는 이번 설문 결과에서 드러난 결과를, 복음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한다(LifeWay Research: 'Boring' Church Programs Really Do Attract People).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잘하는 교회는 새신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교회 예산을 전도와 선교에 넉넉히 배정하고, 불신자와 복음을 나누기 위해 교회 밖으로 나가 섬기고, 목회자가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특정한 시간을 배정하는 교회였다.

"교회의 중심이 복음에 기초한 기본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 '그' 교회를 사용"

전도를 가장 잘 하는 교회는 이렇게 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비교적 높은 비율로 비기독교인에게 다가가는 교회 중, 93%의 교회는 비기독교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적어도 6개월마다 교회 밖으로 나간다고 한다.

92%의 교회는 비기독교인에게 그들의 신앙을 공유하거나 복음적 대화를 나눈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68%의 교회는 최소 6개월에 한 번 새신자를 위한 강좌를 제공한다.

66%의 교회는 매주 개인적인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기를 요청한다.

57%의 교회는 교회 밖의 비기독교인과 복음을 나눌 목적으로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그들의 시간을 비워둔다.

51%의 교회는 적어도 6개월마다 개인전도 훈련을 참여한다.

26%의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관련해 교회 예산이 비교적 높은 비중(30%나 그 이상)을 차지한다.

휘튼대학 빌리그래함센터의 릭 리처드슨(Rick Richardson)에 따르면 이번 조사 중 가장 많은 회심자가 있는 교회는 급진적인 새로운 복음 전략을 펼치지 않았고, 단지 기본에 충실했다고 한다.

"전도를 잘한 이런 교회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환대할 때 한층 더 노력한다"며 "전반적으로 교회는 옳은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저 더 꾸준히 전도와 봉사를 해야 한다. 작은 것들이 조금씩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릭 리처스든이 전했다.

작은 교회가 불리하지는 않다

이번 설문은 특히 이중직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거나 예산이 적은 경우에 고무적이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전도를 효과적으로 가장 잘하는 방법은 목회자가 의도적으로 우선 자신의 삶 가운데 복음의 가치를 깊이 심고 이후에 사람들, 그리고 프로그램에 심는 것이다.

"우리는 길을 잃은 사람들, 즉 교회에 대한 사전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매우 많다"며 "그래서 목회자가 앞장 설 수 있다. 교회에서 목회자만큼 복음을 더 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비기독교인과 복음을 나누고 교회 사람들에게 똑같이 가르치는데 시간을 내는 목회자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뉴올리언스신학교 부교수이자 동 설문 진행과 분석에 수석연구진인 제프 파머(Jeff Farmer)는 전했다.

교인 대부분이 비기독교인과 거의 일주일 내내 함께 일하기 때문에 "목회자만큼 복음을 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삶 속에서 전도에 전념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복음의 가치를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목회자라면 그럴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접근 방법은 초대형교회 목회자인 릭 워렌(Rick Warren)의 '목적이 이끄는' 모델의 핵심인데, 자주 오해 받으며 충분히 실행되지는 않았다. 릭 워렌 목사의 저서 "목적이 이끄는 교회(The Purpose Driven Church)"에서 그의 복음주의 모델은 '구도자 민감성(seeker sensitivity)'이기보다는 목회자가 목적을 가지고 제자도, 예배, 공동체, 봉사, 전도를 교회의 DNA에 만들어내려는 소명이다.

비록 전도에 대한 '정해진 프로그램'은 없지만(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매우 신비한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 한 가지만큼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 교회의 중심이 복음에 기초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세상가운데 참된 행복은 예수안의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그의 훈련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악착같이 돈을 벌려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루고 싶어 한다. 자식들이 보기에 거지같은 짓처럼 보일지라도 돈을 모으려 한다. 돈이 힘을 쓰고, 돈이 행복을 준다는 데 대해 동의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결과로 거지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미 그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인생의 목표와 가정의 기본으로 삼은 가정들을 보라. 자식이 부모에게 칼을 들이대며 분쟁하지 않는가? 돈이 중심목표가 되었고, 그것이 가르침이 되었기에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이다.

돈의 끝이 무엇인가? 일만 악의 뿌리이다. 그래서 돈만 바라보고 살면 악질로 변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돈이 많아도 인색한 사람이 되어서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이 없는 것을 본다. 돈 떨어지면 다 떠날 사람들만 가득한 것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혹자는 건강과 연결해서 행복을 구하고 찾는다. 너무나 제한적인 행복임을 알게 된다. 건강을 좇아가 보면, 사람의 육체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몸에 어떤 종류의 병이라도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기 몸뚱이만 바라보고, 늙은 몸을 보면서 속상해 한다.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이란 존재는 그저 병들고 몸 상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적 존재로 각인될 따름이다.

사람의 행복은 무엇인가?

사람의 행복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은 약속한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행복이라는 것이 조금 잘 사는 정도라고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어져 달려간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신다.

성경을 보면, 한 마디로 행복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기록된 것이 없다. 우리의 목표는 거룩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 세마포는 '거룩'을 말한다.

세상의 쾌락이나 돈, 건강 이러한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지 못한다. 더 큰 갈증을 일으킬 뿐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돈이 많고 건강이 좋아져서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없어도 우리 속에 참된 부요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돈이 있으면서도 거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으되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을 누리는 존재이다.

예수 안에 있음은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것, 변화를 말한다. 스무살 때 예수 믿었다면 서른 살이 되면 달라져야 한다. 오십이 되고 환갑이 되었으면 더 달라져야 한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악질 같은 인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마귀 사촌을 닮은 얼굴로 변해간다면 그는 예수와 상관없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불쌍한 존재일 따름이다.

거룩함의 구별-행복

거룩해지는 과정을 경건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거룩을 만들어가도록 하셨다. 경건과 거룩은 함께 있는 단어이다. 이를 위해 고난도 허용하신다고 성경은 말한다.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면,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시험에 빠져서 신앙방학을 하다가 방황하는 것을 쉽게 본다.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올 터인데, 인생의 막대한 소모전을 치루는 것을 본다.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갑자기 사업이 망하게 되었는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이라고 감사를 선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당시에는 잘 이해가 어렵더라도 후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된다. '하나님께서 저의 사업이 잘 되었더라면 제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임을 아셨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라는 인생은 잘 해주면 해줄수록 교만해지고 세속을 따라가는 그런 분량의 존재임을 다 아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소유물을 가져가시면서까지도 마침내 저를 거룩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와 같은 고백이 분명하고 참되다면 그는 분명히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보는 눈이 믿음의 참 부자인 거룩한 존재이며, 참 행복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간섭과 훈련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한다. 고난의 자리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릴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 빻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때로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상황들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능력의 전혀 없음을 고백하고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자리까지 가게 하신다. 예수님은 십자가위에서 우리를 완전히 부수시고 다시 일으켜 주우시는 분이시다. 그 후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어 가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실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들은, 독한 인생 악한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기술자는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한다.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을 훈련받았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누더기 같은 옷을 덧입힌 것뿐이지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농사짓는 원리와 같다. 아무리 부지런하게 많이 뿌린다고 해도 위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 것도 거둘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무리 열정을 다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과 간섭, 그의 훈련이 없이는 아무 것도 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지렁이 같은 인생의 비참함

성경의 야곱은 세상의 성공과 행복에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지나칠 정도의 경쟁심을 가진 존재였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취하는 것을 보면 어릴 때부터 무서운 아이였음을 보게 된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훗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7년을 수일처럼 거듭 지나는 것을 본다. 또한 자신의 양떼를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몸부림치는가를 생각하면 서늘한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인물이다.

그의 삶의 과정은 잔뜩 자기 생각에 매여서,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자기방식대로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과연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다. 야곱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다. 야곱이 고생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언제나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았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 그러자 라헬은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내어주면서까지 자식을 낳으라고 한다. 〈11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11월 감사의 달에 미국에 온 조상 청교도들이 다 영국에서 개혁적 신앙을 가진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정신과 신앙과 사상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보다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토랜스 김상기 장로

A: 한마디로 미국에 온 청교도들은 개혁가인 쯔윙글리의 사상과 신앙에 영향을 받은 칼빈주의자들입니다. 루터가 독일에서 95개의 논제를 비텐베르그 대학 성당 문 앞에 붙이는 것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면 쯔윙글리의 개혁은 스위스에서 같은 시기에 성경적 강해설교를 강단에서 토하듯이 하는 설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쯔윙글리는 루터보다도 훨씬 더 성경중심의 원칙주의자였습니다.

1)"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 위에 있다. 성만찬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신부와 수녀들도 결혼할 수 있다." 쯔윙글리는 인간의 선행이나 성인숭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성직자 개념을 거부했습니다. 연옥신학도 거부했습니다.

2)예배를 개혁하지 않고는 종교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과거 초대교회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 로마카톨릭의 전통적 상징을 가차 없이 떼어내고 불태우고 버렸습니다. 성당의 촛대, 성자상, 음악, 그림, 성직자 예복, 십자가, 벽장식, 무늬 등을 다 제거했습니다. 라틴어가 아닌 모국어로 설교했고 설교자의 목소리가 최대한 잘 들리도록 성도들 한 가운데에

쯔윙글리의 정신 전수한 청교도들은 타협 없는 순결 강조

강단을 높이 설치했습니다.

3)성가대 중심이나 음악 전문가들이 드리는 예배찬송에서 청중이 함께 부르는 회중찬양중심으로 바꾸었습니다. 4)개신교 예배당도 개신교 철학에 입각하여 단순하고 실용적이며 소박하게 지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당 건물이 카톨릭처럼 고딕식으로 웅장하고 화려한 것보다 많은 사람이 모여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빈공간이면 만족했습니다.

5)쯔윙글리는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교회와 사회를 구축해낼 수 있을까? 성경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 같은 요소와 카톨릭 잔재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개혁하려는 정신, 또 교회 뿐 아니라 국가 시스템까지도 거룩하게 하려는 정신, 훗날 영국에서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퓨리탄(Puritan)"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순결하게 한다(purify)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야말로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개혁을 뜻합니다. 이 퓨리탄들이 영국 청교도들입니다. 영국교회를 정화하고 사회까지 정화하려고 기울인 노력에서 나왔습니다. 훗날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간 영국의 청교도들은 쯔윙글리를 롤 모델(Role Model)로 그의 사상을 그대로 도입하여 성경적 개혁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성경적 기독교 국가 건설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쯔윙글리와 그의 정신을 전수한 청교도들은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했다고 할 정도로 타협 없는 순결을 강조했습니다. 각 개인의 중생의 체험을 중시하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간증할 수 있어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설교의 중요성, 성경중심의 신앙, 주일성수, 십일조, 건전한 크리스천 노동철학, 엄격한 교회 치리체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건전한 가정이 건전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국가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교회만이 아니라 병원이나 군대나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크리스천 문화, 크리스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개념이 실체화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교도운동을 통하여 1)현대적인 민주주의 사상이 나오게 되었고 2)자본주의 정신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3)경건한 가정을 중시하는 풍조가 굳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미국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휴대용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카라반 캐노피는 18년의 대형 프린팅 전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제작, 한글 캘리그라피 디자인등 다양한 디자인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14600 Alondra Boulevar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714.367.3046 (한국어) www.caravancanopy.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파키스탄의 브라후이(Brahui)

파키스탄의 2백30만 브라후이인들은 켈라트(Kelat)에 거주한다. 약 3만 평방마일의 지역이 사라완(Sarawan) 고지와 카키(Kacci) 저지대 평원으로 나뉜다. 이 지역은 다시 술라이만(Sulaiman)과 키르타르(Kirthar) 산지 그리고 80마일 길이의 볼란길(Bolan Pass)로 나눠진다. 아프가니스탄의 남부지방과 이란에도 작은 브라후이 집단이 있다.

브라후이인들은 1600년대에 권력을 잡기 위해 힌두 왕조를 전복시켰다. 1700년대 나시르 칸(Nasir Khan) 시대에 그 연합체는 절정에 달했다. 오늘날 브라후이인들은 29개 부족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8부족이 부라후이의 진짜 핵심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브라후이인들은 그들이 브라후이디어(Brahuidi)라고 불리는 드라비다어(Dravidian lanquage)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웃인 푸쉬툰인(Pushtun), 발루치인(Baluchi)과 구별된다. 언어학자들은 이 브라후이인들이 남부 인도의 드라비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1000마일이나 떨어져 살면서 어떻게 관련됐는지는 알아낼 수 없었다.

삶의 모습

오랫동안 대부분의 브라후이인들은 이들의 가축을 위해 적당한 기온과 비, 목초지를 찾아 고지대와 저지대 사이를 이동하는 유목민이었다. 춥고 얼음이 어는 겨울에는 평야에서 살고 2월이나 3월에 양들이 태어난 후 다시 산지로 돌아갔다.

브라후이 유목민들의 숫자는 과거 백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됐으며 오늘날에는 많은 이들이 완전히 마을에 정착했고 지하수를 이용해 관개하고 여러 가지 현찰 곡물들을 기른다. 행정관서 상업 중심지들이 있는 많은 마을들이 있지만 연중 계속해서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은 비교적 적다.

브라후이 양치기들은 그들의 가사 일을 협력하기 위해 "칼크(khalks)"라고 하는 모임을 조직했다. 각 칼크는 상주하면서 일하는 직업적인 한명의 양치기와 한 무리의 양떼로 구성된다. 이 상주 양치기(resident shepherd)는 양을 500마리까지 담당한다. 이것으로 인해 어른, 아이를 포함한 남자들이 밀 수확을 위한 마을 농장으로 가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브라후이인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다. 상주 양치기는 남자들을 시켜서 이들의 가축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다른 브라후이들과 야영지의 위치나 양떼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칼크(khalks)의 이용을 인해 브라후이인들은 전문적인 양치기가 됐다. 이들은 양들을 함께 방목할 수 있는 최적 숫자를 알아냈고, 양들이 숫자가 적은 조건에서 흩어져 돌아다닐 때 편안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양의 수가 500마리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양치기는 그룹을 나눠서 새로운 칼크를 형성하기 위한 천막집을 만들어 이동한다.

결혼은 가족 내에서 중매로 이루어진다. 가끔 친척이 아닌 경우에 사랑하는 두 사람의 희망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이 아버지 쪽의 사촌과 결혼하기를 바란다. 남자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취하나, 소요되는 경비 때문에 이 관습이 제한되곤 한다. 이혼은 브라후이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드물다. 전형적인 가정에서는 결혼한 아들이 그들의 부모와 함께 산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형제들은 장자의 통솔아래 하나의 재산을 가지고 함께 산다.

부족(The tribe)은 브라후이족의 정치적인 기본단위다. 부족들은 부자승계(patrilineal descent)와 정치적 연합에 그들의 기초를 두고 있다.

신앙

대부분의 브라후이인들은 수니 무슬림들이다. 이들은 신앙심이 강하고 이슬람의 다섯 가지 의무(기도, 금식, 자선, "알라는 유일한 신이며, 무함마드는 그의 선지자"라는 확언, 메카로의 순례여행)에 충실하다.

필요한 것들

현재 2개의 선교단체가 이란의 브라후이인들을 목표로 사역하고 있으나 이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가 매우 적다. 이들에게는 중보기도와 추가의 복음적인 자료들, 그리고 이들의 거친 유목민적인 생활양식에 기꺼이 적응해 이들 사이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시간주, 학교 · 교회 · 술집에도 총기반입 허용 추진

미국에서 크고 작은 총기 참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시간 주가 총기 휴대 허용 범위를 학교와 교회, 주점 등으로 넓히는 입법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시카고 트리뷴과 미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시간 주 상원은 이날 학교·교회·주점 등 기존의 '총기반입 금지 구역'에서 노출하지 않고 총기를 휴대(concealed carry)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5 대 반대 12로 승인, 하원에 이관했다.

이 법안은 총기휴대 허가증 소지자가 8시간 이상의 추가 교육을 받으면 총기금지구역에도 합법적으로 총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개인사업체와 15개 주립대학 가운데 자치권을 가진 미시간대학·미시간스테이트대학·웨인스테이트대학 등 세 곳은 총기 제한이 가능하다. 또 총기휴대 허가증을 가졌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들고 다니거나 의도적으로 내보여서는 안 된다.

현재 미시간 주의 총기휴대 허가증 소지자는 약 61만8천 명이다. 그러나 학교·놀이방·운동경기장·대형 콘서트장·술집·예배당·병원·대학 기숙사와 강의실·카지노 등에 총기를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트리뷴은 공화당 소속 의원 25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11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1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전했다.

법안을 발의한 알란 미코프 미시간 주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텍사스 교회 총기 난사 사건이 입법 추진에 촉매가 됐다"면서 "모든 시민에게는 자유롭고 안전하며 안심할 권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임감이 있고, 훈련을 잘 받은 합법적 총기 소지자는 총기 금지구역에서 흉악 범행을 저지르려는 이들에게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총기규제론자들은 학교와 보육원 등 공공장소에서 경찰이나 보안요원이 아닌 이들의 총기휴대를 허용하는 데 대해 "우발적인 총기사고가 늘 수 있고, 경찰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책임보험 비용을 인상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술집에 총기반입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공화)는 2012년 코네티컷 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직후 유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새 법안에 대한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한편 미시간 주의회는 이와 함께 자격을 갖춘 만 18-20세에게 임시 총기휴대 허가증을 발급하는 입법도 추진 중이다. 현재 총기휴대 제한 연령은 만 21세다.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 그럼 예수 대신 시진핑 사진 걸어"

중국 남부의 한 가난한 마을에서 수천 명의 크리스천들이 예수의 사진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공산당 총서기의 사진으로 교체하고 있다. 빈곤 구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아닌 당에 대한 믿음을 키워야한다는 지방 정부의 강요 때문이다.

장시성 포양호 주변의 위간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1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100만명의 인구 중 11%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위간현은 10% 가까이가 크리스천이다.

지역 정부가 빈곤 퇴치 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예수의 사진을 떼어 내고, 십자가나 다른 성화 등을 치우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예수의 사진이 있던 자리에는 시진핑의 사진이 걸려야 한다.

시 주석은 지난달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2020년 중국 현행 표준 농촌 빈곤 수의 전원 빈곤탈출과 빈곤 마을의 전체 빈곤탈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간현에서 공산당은 그동안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기독교와 '경쟁'을 해야 했다. 중국에서 기독교는 문화대혁명이 종료된 이후 40년 이상 동안 농촌과 도시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9000만명인 공산당원보다 기독교인이 많다.

최근 지방의 한 SNS는 공산당 간부들이 위간현 황진부 마을을 찾아 당의 빈곤 구제 정책을 선전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종교에 대한 믿음을 당에 대한 믿음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600여명의 마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가지고 있던 성경과 그림들을 폐기하고 시 주석의 사진 453장으로 대체했다.

해당 기사는 온라인에서 사라졌지만 SCMP는 마을 주민들과 지방 관리들을 통해 관련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황부진 지역 전인대 위원장 치옌은 "지난 3월부터 관련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기독교 가정들에 공산당이 가난 퇴치를 돕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시 주석이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관심을 갖고 있는 지를 집중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빈곤 가정들은 가족의 병 때문에 가난에 빠져들었다"면서 "일부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이 든 것은 물리적인 것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당이고 시진핑 총서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진부는 5000-6000 가구가 기독가정이고 전체 가구의 3분의 1 가량이다. 황진부 정부 측은 1000장 이상의 시진핑 사진을 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간현 다른 마을에 사는 류모씨는 "최근 몇 달 사이 주민들이 종교 관련 물건들을 치우라는 명령을 받았다"면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찍은 유권자 82% '다시 대선해도 트럼프'"

지난해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대다수가 만약 대선을 다시 치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모닝컨설트에 의뢰해 지난달 26-30일 유권자 1천99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던 응답자의 82%가 대선을 다시 해도 트럼프 대통령을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에 도전해 가상의 민주당 후보와 맞붙었을 경우를 상정하면 이들 트럼프 지지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찍겠다는 비율은 76%로 약간 떨어졌다.

나머지 8%는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고 16%는 결정을 유보한 부동층으로 남았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후보의 경우 당시 그를 찍었던 응답자의 78%가 다시 클린턴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에 도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가상의 민주당 후보 중 누구를 선출할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을 10%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6%가 트럼프 대통령을 찍겠다고 밝혔지만, 46%는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층은 18%였다.

다만 이는 민주당 후보를 특정하지 않아 개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현재 민주당 유력 차기 후보군으로 꼽히는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구체적 인물을 집어넣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펜스 부통령 "6 · 25전쟁이 내 아버지 삶 바꿔놨다"

"내 아버지는 한국전쟁에서 무공훈장을 받았지만 함께 살아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 생각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1일 워싱턴DC 인근 앨링턴 국립묘지에서 한국전 참전용사였던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참전용사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한국전쟁이 천하태평 성격의 아버지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 놓았다"고 회상했다.

펜스 부통령의 아버지 에드워드 펜스(1929-1988)는 한국전쟁 당시 미 육군소위로 참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8일 한국 방문 중 국회 연설에서 언급한 폭찹힐(pork chop hill) 전투에서 치열하게 싸운 공로로 무공훈장을 받았다. 폭찹힐 전투는 1953년 7월에 체결된 휴전협정을 앞두고 경기도 연천 천덕산 일대 300m 고지에서 미군과 중공군 사이에 3개월 동안 펼쳐진 싸움을 말한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양이 폭찹(pork chop)이라는 돼지고기 요리를 닮아서 붙은 별명이다. 당시 전투로 미군 사망자가 347명, 중공군 사망자는 1500명이었다. 펜스 소위가 동성무공훈장을 받으며 찍은 사진은 지금도 아들 펜스 부통령의 집무실에 놓여 있다.

펜스 부통령은 "아버지는 생전에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선친이 돌아가신 후에야 시카고에 사는 사촌으로부터 들었다"며 "아버지는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전우들 생각에 평생 죄책감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쟁기념일만 돌아오면 먼 산을 바라보듯 한 곳을 응시하며 힘들어했다는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 모인 참전용사 여러분은 이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바란다"며 "정부가 여러분의 어깨에 지워진 짐을 나눠질 것이고, 국민들은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탈북남성, BBC통해 시진핑 · 트럼프에 호소

2015년 탈북한 남성이 최근 탈북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에 붙잡힌 아내와 3살 아들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아 달라고 중국 정부에 호소했다.

영국 BBC방송은 자신을 '리'라고 밝힌 이 탈북 남성이 이런 요청하는 영상메시지를 받았다고 11일 보도했다.

리 씨의 아내와 3살 아들을 포함한 북한주민 10명은 지난 4일 탈북을 시도하다 중국 선양에서 공안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했다.

리 씨는 이날 영상 메시지 이외에 아내와 아들과 단란하게 지내던 사진 몇 장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아내와 아들이 북송되면 사형을 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 죽도록 고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의 아이를 손주라고 생각하고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며 "아버지로서 두 정상에게 내 가족을 도와달라고 빈다"고 덧붙였다.

리 씨는 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게 들리는 것 같다"면서 "아이가 차가운 감옥에 갇혀 아버지를 부르며 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앞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에서 붙잡힌 탈북자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구체적인 관련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유관 문제를 처리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과 중국 양국은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고위 외교 당국자 접촉을 통해 탈북자 문제를 논의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양국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중국측 관계자에게 최근 북중 접경에서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주 선양 총영사관이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을 언급했다.

이어 최근 중국 선양에서 체포된 탈북자 10명과 관련해 "탈북자 당사자의 의사와 인권존중,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른 처리, 탈북자 의사 확인 시 한국 정부가 신병을 접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행 의사가 있는 탈북자에 대해선 한국정부가 신병을 인계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이에 중국 측은 "알아보겠다"고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희생자 돌보며 폭력 근본원인에 계속 질문 던져야"

미국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제일침례교회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세계교회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주일 낮 예배 도중 일어난 참사는 최소 26명의 목숨을 빼앗고 20명 넘는 부상자를 냈다.

미국 최대 개신교단인 남침례교(SBC) 텍사스총회(SBTC)와 지역 목회자들은 전날 오전 제일침례교회를 찾아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로했다.

스티브 게인즈 남침례교 총회장은 이날 미국 침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침례교 지도부는 7일 파괴된 제일침례교회 예배당을 찾아 담임목사와 사모를 만나 위로할 것"이라며 "주님께서 자비로운 손을 들어 희생자의 상처를 치료하고 희망을 주시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 이상 이런 참사가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 간구한다"고 덧붙였다.

남침례교는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의 장례비용을 텍사스 총회 및 교단 북미선교위원회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또 8일 오후 플로레스빌 고등학교 인근 축구경기장에서 희생자 추모를 위한 지역 기도모임도 열기로 했다.

미국장로교(PCUSA) 총회 산하 장로교재난지원단(PDA)도 텍사스 총기 난사 피해자와 해당 교회를 돕기로 결정했다. 인근 지역의 PCUSA 소속 장로교회들도 개별적으로 기도모임을 열어 애도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미,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시사… "기준 충족"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북한은 테러지원국 기준을 충족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결단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중국으로 이동하는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 미 정부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것은 북한이 위협을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며 "그러나 그 방법은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무역과 금융거래를 여전히 북한과 하고 있다"며 "중국과 긴밀히 협의해 그런 활동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북한의 비핵화 낌새가 전혀 없다"며 "북한은 한국이 군사충돌 방지를 위해 핫라인을 유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중국은 김정일을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모두 6번 초청했으나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면 정권교체로 이어질까 두려웠던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종교개혁 500주년 - 무엇에 관심을 기울일까? (21)

- 5대 개혁 정신 (2) 오직 은혜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하나님 은혜에 대한 논의: ①구원에 관한 것 ②성도의 삶에 대한 것
"신앙인 된 후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간의지는 자유하지 못하다"("노예의지론" 1525년)

루터, 예정 교리 믿은 어거스틴 수도원 대부 스타우피츠의 도움 받아
종교개혁은 가톨릭교회가 천년간 거부한 어거스틴의 은혜 교리 회복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풍족하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심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근거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 있다. 몸을 찌르는 가시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선언하였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확신하였다.

그가 남다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발견한 진리가 아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심으로 분명하게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개의 주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구원에 관한 것으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성도의 삶에 대한 것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루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제공할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마르틴 루터는 어려서부터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연마하였다. 문맹률이 대단히 높았던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그가 얼마나 특권을 누렸는지 알 수 있다. 루터의 부친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다. 그는 루터의 영특함으로 발견하고, 그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루터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진리를 탐구하며 경험하는 남다른 즐거움이 그의 모든 학문 활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진리를 탐구하는 그의 마음은 단순히 학문적인 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어느 순간부터 로마가톨릭 전통에 익숙했던 자신의 신앙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특히 그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답을 찾기 위하여 심한 갈등과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은혜를 얻기 위한 행위

그는 성경은 하나님을 은혜로운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은혜로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그가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행위'를 강조하는 중세 교회의 가르침을 꼼꼼하게 숙지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그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쉬지 않았다. 자신을 학대하는 일도 거부하지 않았다. 로마를 방문하였을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무릎으로 피를 흘리며 계단을 올라간 유명한 일화도 있다.

루터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의 소유자였다. 그 당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매우 형식적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의 영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는 자체가 매우 다행스런 일이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으로 여겼다는 사실이 우리의 관심을 끌게 한다.

그가 지녔던 개혁의 불꽃이 시작된 곳은 중세교회의 오류와 부패를 지적하는 부정적이며 날카로운 그의 눈과 손가락이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심하게 부패되고 부서진 마음이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항상 너무도 죄스러워 부끄러웠다.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온갖 고행을 통해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였던 그의 마음에 제동이 걸렸다. 그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난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도 꾸짖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야속하였다. 이 정도라면 인정을 해주실 만한데, 끔적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의심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루터는 분명히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로마가톨릭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분명 그들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게 된 것이다. 그의 생각을 도와 지속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도운 스승이 있었다.

수도원에서 만난 그의 스승 스타우피츠(Staupiz)는 어거스틴 수도원의 대부였다. 비록 중세 교회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 예정 교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려는 개혁적 마인드를 지닌 자였다. 그는 루터에게 어거스틴의 책을 읽게 하였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제공해 주었다.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

초대 교회에서 활동했던 교부들 중에 종교개혁자들에게 최고의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어거스틴이다. 종교개혁은 어거스틴 신학의 재발견이었다. 그는 초대교회의 신학을 집대성 하면서 펠라기우스와의 신학 논쟁을 통해 가장 중요한 은혜 교리에 대한 금자탑을 이루었다. 펠라기우스는 아담으로 인한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하였다. 하나님은 개인이 은혜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만큼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어거스틴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요소를 배제하고 완전하게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시간, 방법, 장소, 대상 모두를 정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히 사색적이며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가 자서전 형식으로 기록한 "고백록"에 잘 타나나 있듯이, 끝없는 방탕의 길에서 회심한 체험한 신앙인으로서, 그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냈다.

루터는 스타우피츠의 권유에 따라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가 지녔던 최대의 궁금증을 풀게 되었다. 성경을 연구하기 전까지, 그에게 인식된 하나님은 심판자였다. 항상 진노에 가득차서 당장 생명을 취해갈 수 있는 분이었다. 그가 바로 앞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 뒤, 즉각 수도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을 대하면서 달라졌다.

그가 시편을 연구한 뒤 책을 내면서, 서문에 자신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기록하였다.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그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며,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었다.

루터의 후계자 멜랑히톤(Melanchthon)은 1530년 6월에 열린 제국의회에서 루터파 신앙의 교리를 28개조로 정리한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을 발표하였다. 루터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핵심 내용으로 한 고백서를 크게 환영하고 기뻐하였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루터는 저명한 인문주의자 학자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6-1536)를 종교개혁을 위한 동반자로 생각하였다. 그는 라틴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등 고전 연구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중세 교회의 부정부패와 성직자의 권한 남용을 노골적으로 비판하였다.

당연히 교회 지도자들을 그의 주장을 불경스럽게 여겨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였다. 특히 그가 영국 방문 중에 기록한 "우신예찬"에 중세 교회를 향한 신랄한 비판을 담아 놓았다. 그의 개혁 시도는 매우 노골적이었다.

그렇다고 에라스무스가 루터의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도 아니었다. 특히 루터와 에라스무스 사이에 벌어진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으로 인하여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었다. 에라스무스는 1524년에 "자유의지론"을 출간하였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성경은 자유의지의 여부에 관하여 매우 중립적이라고 알리고자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반드시 인간의 의지가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인간이 부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은 성경이 죄인은 죄인으로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역설한 것이다.

이에 맞서 루터는 1525년에 "노예의지론"을 저술하였다. 그는 인간의 의지 자체로서는 죄만 지을 뿐,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세속적인 일을 결정할 때에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 결정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중생하지 않은 자가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피력하였다. 신앙인이 된 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의지는 결코 자유하지 못하다고 강조하였다.

에라스무스는 루터가 인간의 의지로 선택의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태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고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중세 로마가톨릭교회를 향한 개혁을 외치던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무엇보다 루터와 달리 에라스무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중세가톨릭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에라스무스는 구교와 개혁자 모두에게 버림받아 외톨이가 되었다. 루터는 자신의 뜻에 동조하는 자들과 힘을 합하여, 오직 은혜 사상을 확장시켜 나갔다.

루터는 자신의 영적 갈등과 고난을 통과하며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을 발견하고 후대 교회에게 전수하였다. 구원을 얻어 신앙인이 되는 것, 구원 얻은 후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세 가톨릭교회가 거부한 어거스틴의 은혜 교리를 회복하였다. 하나님 앞에 선 부패한 자신의 모습의 발견으로 시작된 성경적 개혁은, 부패한 인생을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재발견이라는 열매를 얻게 된 것이다. 오직 은혜! 이 개혁의 정신을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발견되는 심히 부패한 "나"의 모습 때문이다.

covenantcho@yahoo.com

구 독 신 청 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 국	$100	유 럽	$190
캐나다	$110	남 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 청 유 형	☐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목 사 ☐ 영 어 : 평신도 ☐
배 달 주 소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 달 주 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본 교회는 창립 33년 되는 LA 소재 교회로 투철한 소명과
이민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갈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1. 부 목사님 (Full Time)
- 정규 신학대학원 이상 졸업자로서 목사 안수 받으신 분
- 40세 미만의 기혼자
- 한국어외 영어 소통이 원할 하신 분
-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2. Youth Group (중고등부) 전도사님 (Part Time)
-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나 재학중인 분
- 영어 설교 가능하고 이중 언어 가능하신 분
- 체류 신분이 합법적인 분

3. 찬양 리더 (Part Time)
- 찬양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분으로 기타나 키보드로 찬양 리더가 가능한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 및 가족 사진)
2. 자기 소개서 (신앙 간증 및 목회 소명)

제출기한 및 방법
1. 제출서류 마감: 11/30/2017 까지
2. 제출방법: 모든서류는 메일로보낼것
Email: lalkcyoon@gmail.com
lkc0085@sbcglobal.net

사랑한인교회
2801 W. Temple St. L.A., CA 90026
담임목사 하 재 식

청교도 신앙 (44)

청교도와 학교 교육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육 모델은 청교도의 학교 교육
학교설립목적은 학생들을 신앙인으로 키우는 것
'뉴잉글랜드 입문서' 통해 신앙훈련 받고 진학

들어가는 말

교육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다. 교육은 한 두 마디로 요약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다. 그것은 진인격과 전 학문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총체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천지창조 이래로 교육은 에덴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육인가라는 출발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적인 실례가 필요하다. 성경에서도 많은 실례들을 찾을 수 있지만, 역사에서 우리에게 가장 본받을만한 모델을 찾으라면 이 또한 청교도의 학교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대의 학교 교육의 대부분이 교육 시행에 있어서 교육의 근저에 깔린 철학과 원리, 방법과 실제가 세속적인 철학 사상에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에 케네스 갱글과 워렌 벤슨의 "기독교 교육: 역사와 철학", 오덕교의 "언덕 위의 도시", 유진 깊스의 "한권으로 읽는 교육학 명저", 프레드 & 그레이스 헤칭거의 "미국교육사"와 같은 저서들을 참조하여 청교도와 학교 교육의 내용들을 전개하고자 한다.

청교도들은 성도들에 대한 사탄의 가장 큰 공격 수단이 무지라고 생각했다. 사탄은 가능한 한 사람들을 성경의 지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무지와 미신으로 인도하려고 우는 사자가 삼킬 듯한 기세로 성도들과 세상을 공략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다.

역사 속에서 청교도들은 이러한 사탄의 공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녀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학교를 염두에 두었다. 이러한 성경적인 청교도의 학교 교육의 구체적인 실상을 안다면 우리사회의 교육적인 대안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교육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1)신앙과 학문을 위한 학교의 설립

청교도들은 자녀 교육을 위한 제도적인 창치가 필요함을 인식하여 이를 성취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580년 영국 에섹스의 데댐(Dedham)에 있던 한 장로교노회는 모든 젊은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영어를 가르칠 것을 결의하였고, 1642년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자녀들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들과 이 나라의 중요한 법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가장들은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쳐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647년 매사추세츠 정부는 50가정이 있는 동네에는 초등학교(Reading School), 100가정이 넘을 경우에는 중등학교(Grammar School)를 세우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교도들은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쏟았다. 이런 법은 1650년에 커네티컷, 1655년에는 뉴헤이븐, 1671년에 플리머스에서도 채택되었다.

법령 선포 후에 10년이 지났을 때, 50세대가 넘는 마을 가운데 3분의 1의 소규모의 학교를 운영하였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소규모 학교보다는 자신의 집에서 자녀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1648년에는 가장의 교육적 의무를 강화하여, 매주에 한번 이상 자녀와 종들에게 교리 문답을 통해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가르칠 것을 법으로 정하기도 하였다.

2)학교의 목적

뉴잉글랜드 청교도의 학교 교육의 주된 목적은 학생들을 신앙인으로 만드는데 있었다. 초기의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중등학교와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런 학교들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학생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있었다.

신대륙에 도착한 후, 사회적인 안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로 가정에서 가장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졌었다. 이 때 가장은 글자판(Hombook)을 이용하여 알파벳, 자음과 모음의 배합, 주기도 등을 익히도록 교육하였다. 가장들이 주기도를 중시되는 교육 내용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들이 신앙 교육에 초점을 두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가장 중심의 교육제도는 유식한 부녀들이 자녀들을 모아 가르치는 여자가 경영하는 옛 초등학교(Dame School)의 체제로 바꾸게 되었다. 부녀들은 글을 익을 수 없는 자들의 자녀들에게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침으로 어린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러나 부녀중심의 학교의 한계를 느끼게 되자,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공립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를 세우게 되었다.

뉴잉글랜드에 초등학교가 세워진 것은 1640년 이반의 일이다. 초등학교 입학 자격은 7세에서 8세에 이르는 남자아이들이었고, 17세기 후반부터는 여자아이들도 입학이 허락되었다. 어린이들은 글자판이나 철자책(Speller)으로 읽는 것을 배운 후, 교리 문답서와 '뉴잉글랜드 입문서'(New England Primer)를 통해 신앙인으로 훈련을 받았다.

2. 초등학교와 교과서

'뉴잉글랜드 입문서'는 미국 교육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이며 영향력이 있던 교재로 미국인의 신앙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은 1690년 이후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100년 이상 주 교재로 사용되었으며 1790년부터 19세기말까지도 참고 교재로 사용되었다. 이 책은 어린아이들이 아침과 저녁에 사용할 수 잇는 기도문을 포함하는 등 신앙적인 내용이 대부분으로 '뉴잉그랜드의 작은 성경책'(Little Bible of New England)으로 불리었다.

최초의 독본은 1669년 존 엘리엇(John Eliot)이 인디언을 위해 만든 뉴잉글랜드 입문서(New England Primer)이며, 1690년에서 1830년 마지막 판이 나올 때까지 800만 부 이상 팔았다. 크기는 세로 5인치, 가로 3인치 정도로 알파벳, 음절 표와 기도문, 교훈 등이 그 주된 내용이며, 성경 사건이 3분의 2를 차지한다.

청교도들은 이 입문서를 통해서 그냥 알파벳이라는 의미 없는 문자를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자체를 통해서도 성경의 내용을 배우도록 인도했다. 알파벳을 익히면서도 성경을 배웠는데, 예를 들어 'A'를 통해 '아담(Adma)의 타락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을 익힘으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 사상을 배웠고, 'B'를 배우면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탑(Babel Tower) 이야기를, 'C'를 통하여 가인(Cain)이 동생을 시기함으로 몰고 온 결과에 대해, 'D'를 통하여 다윗(David)의 용기에 대해서 배웠다.

또한 '입문서'에는 주기도, 사도신경,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같은 기독교의 기초적인 교리가 들어 있었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런 총체적인 신앙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함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의 든든한 기초를 이루게 하여 준 곳이 미국역사의 초창기의 초등학교였다.

3. 중등학교

1)교과 내용

청교도 자녀들은 '입문서'를 통하여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은 후, 중등학교에 진학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1647년 교육령의 선포 이전에 뉴잉글랜드에는 9개 이상의 중등학교가 존재하였는데 보스턴(1635년), 입스위치(1636년), 찰스타운(1636년), 케임브리지(1638년), 도르체스터(1639년), 뉴버리(1639년), 세일럼(1639년), 핫포드(1642) 등에 중등학교가 세워졌다.

중등학교의 교육 내용도 주로 성경을 배우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것들이었다. 이 중등학교인 문법학교에서 청교도 자녀들은 성경과 함께 라틴어, 헬라어(어떤 학교에서는 히브리어)를 익혔고, 기독교의 고전 연구를 통하여 기독교적 세계관을 정립하였다. 교사들은 대개 5시간 정도 가르쳤는데, 뉴헤이븐의 홉킨스 중등학교(Hopkins Grammar School)의 경우, 교사들은 매일 오전 6시에서 11시, 오후에는 여름의 경우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겨울에는 4시까지 수업을 하였다.

교육의 내용은 수업 시작 전에 교사들이 짧게 기도한 후에 학습 수준에 따라서 분반하여 수업하였다. 월요일에는 주일에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에 대하여 되묻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줌으로 학생들의 신앙성장에 도움을 주었고, 교회와 학교의 교육에 연결을 이루었으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교리 문답을 통하여 신앙교육을 강화함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준비까지 갖추어준 셈이다.

2)교육환경

당시의 교육 환경은 매우 열악하였다. 신대륙의 황무지를 개척하여야 하는 어려움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중등학교의 교실은 가로가 6미터였고, 세로는 약간 더 좁았고, 높이는 1.8미터 정도였다. 창문은 거의 없었고, 책상은 흔들려서 벽에 붙여 놓아야 했으며, 겨울에는 난로 하나로 방을 따뜻하게 덥혀야 했다. 그렇지만 학교의 교사들 대부분이 대학 졸업 후 목회를 소망하고 있고, 또한 목회할 사역지를 찾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신앙으로 교육받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었다.

younsuklee@hotmail.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식도열상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내시경 필수

상부 위장관(식도, 위 십이지장을 말함) 출혈의 증상은 변이 검게 나오는 흑변, 피를 토하는 토혈, 출혈이 아주 심한 경우 대변에 붉은 피가 섞여 나오는 혈변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출혈의 원인은 조직의 염증이나 궤양, 정맥류나 약물로 인한 것 등 매우 다양하다. 상부 위장관 출혈이 심한 경우는 출혈의 양이 매우 많아서 응급 처치가 필요하고 시간을 지체할 경우 생명에 위험을 줄 수도 있다.

-자바 시장에서 일하는 20대 후반의 이모 씨는 심한 구토와 함께 토혈이 있어서 응급실을 찾아왔다. 간밤에 늦게까지 한국에서 온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신 뒤 집에 와서 잠을 잤는데 새벽에 심한 구토 증상이 나타나 토하던 중 다량의 피가 섞여 나왔다. 곧바로 응급조치에 들어갔으나 이 씨의 토혈은 멈추지 않았다. 과거의 위염이나 위궤양 증상이 전혀 없었던 이 씨는 응급실 당직 의사의 권유대로 응급 위내시경을 실시했다. 내시경 검사에서 위나 십이지장에는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었고 식도가 찢어져 있었다. 내시경으로 응급 지혈을 한 뒤 입원 치료를 시작했다.-

복강 내의 갑작스러운 압력증가로 식도 하단부를 누르게 되어 식도 아래 부위가 일자 모양으로 찢어지면서 심한 출혈이 나는 질환을 식도 열상, 전문 용어로는 말로리바이스 증후군 이라고 한다. 이런 식도 열상으로 인한 출혈은 전체 상부 위장관 출혈의 약 5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

식도 열상의 주된 원인은 횡격막 탈장(횡격막에서 식도가 빠져 나가는 구멍이 커지면서 위의 일부가 흉곽으로 밀려 올라가는 경우)이다. 횡격막 탈장이 있는 경우에 흔하고 음주 후에 구토를 하는 경우에도 볼 수 있다. 또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 빈도가 증가하고 간경화증으로 인한 식도 동맥류가 있거나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 소염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도 빈도가 증가한다.

식도열상은 일단 출혈이 멎게 되면 대부분 완치되는데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도나 위궤양 등과같이 상부 위장 출혈의 다른 원인과 감별하기 위해서 내시경이 필요하고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지혈을 하기도 한다. 내시경 상으로 심한 출혈이 보이는 경우 24시간 내에 재출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8시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해 온
미드웨스트대학교
www.midwest.edu

Master and Doctoral Degree Program
Brain/Gifted Education 두뇌개발, 영재교육 석사, 박사학위 과정
MBA - Public Policy/Administration 공공정책과 행정학 석사학위 과정

Master of Arts Education in Brain / Gifted Education
입학자격: 유아교육, 교육전공 학사학위 이상자 및 동등 학력자
Doctor of Leadership in Brain / Gifted Education Leadership
입학자격: 대학에서 유아교육, 교육 전공자, 유아교육, 교육전공 석사학위 이상자 및 동등 학력자, 교육경력 3 년 이상인자.
MBA - Public Policy Administration
입학자격: 대학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 학점, 학위취득 방법 ●
1) 미국 유학을 희망 하는 학생은 SEVIS 1-20 혹은 J-1 Visa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계절별 세미나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이 가능함.
4) 타 학교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함.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B.A 학사- 경영학, 음악, 신학, 기독교교육학
B.S 항공학과- 조종사과정, 승무원, 운항관리사
MA 음악, 영어교육, 상담, 교육(두뇌개발, 영재 교육)
MBA 리더십학, 공공정책과 행정, 글로벌비지니스, 경영학, 투자
M.Div 신학
D.Min 상담, 교육, 목회신학, 선교,
DM 음악 박사
DL 리더십학 박사 - 경영리더십, 조직리더십, 두뇌개발/영재교육리더십

B.S in Aviation Management/ Flights 항공학 학사 및 국제 조종사 면장과정
전공: 항공운항과, 헬기운항과, 운항관리사, 승무원과정
신청자격 : 고졸이상자 및 전문대 혹은 대학 중퇴자, 대학졸업자, 전공에 관계없이 편입가능, 여학생 환영
● 항공학과 특징 ●
1) 미국의 타 항공학과와 비교하여 저렴한 수업료
2) 한국에서 조종 실기는 2-3 년 소요되는데 본교 에서는 학위과정 중 조종사 면장까지 취득가능.
3) 비행 훈련을 위한 넓은 활주로와 실기용 비행기 20 여대 준비 되어있다.
Pilot Certificate Programs (국제조종사 FAA 면장과정)
일반 대학졸업자를 위한 조종사 면장과정- 1 년 과정(자가용면장, 계기비행면장, 상업용 면장)
● 본교소개 ●
본교는 1986 년 세계인재발굴과 양성을 위해 미 중부 도시 St. Louis 에 설립되어 개교 32 주년을 맞는
미국 대학교이며 워싱턴 DC 에 분교, 서울, 방콕, 페루에 Site 를 두고 있고 동문과 재학생은
세계 60 여개국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대학교이다.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대학코드 (USDE) OPE ID; 03528300)
미국,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학점과 학위를 인정 받는 미국정규 학위

입학상담 및 문의처 : 636-327-4645, 070-8690-2662,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목회서신

내가 만약 사탄이라면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사탄은 본래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천사장 루시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천사장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하늘나라에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두움의 주권자,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루시퍼, 즉 사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사탄의 최대 목적은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대단히 교활하고 교만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사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1. 자신을 숨길 것이다.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엡6:11)고 했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궤계, 즉 계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계교가 자신을 숨겨서 사람들이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탄은 실재하지 않는 상징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교활해서 자신을 사람들에게서 잘 숨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교활해서 자신을 숨기고,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하고, 부인하게 만듭니다.

2. 죄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가증이 여기시지만 사탄은 죄를 꼭 매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이브는 아름다운 환경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지만, 사탄은 이브를 꼬여서 죄를 매력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사탄 마귀는 죄에 대해서 매력 있게 하고 끌리게 만들어서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죄케 한 다음에는 영원한 파멸의 벼랑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라도 범죄했으면 회개해야 마귀가 물러갑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방해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깨달아 믿게 되고, 예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기 때문에 마귀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나 반항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졸음이 오거나 잡념이 들게 해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경책에 먼지가 앉지 않도록 매일 읽고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4.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제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능력받아 기적의 역사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시험에 들게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악한 감정으로 미워하게 하므로 기도가 막히게 되고 기도할 때 잡생각을 불어넣어, 기도줄을 놓치고 중언부언하게 하며, 기도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합리적인 핑계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자를 가장 두려워하므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5. 전도와 선교를 방해할 것이다.

하나님의 최대 목표는 영혼구원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도 영혼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아흔 아홉보다 악인 한 사람의 영혼구원에 더 관심이 많고,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예수 믿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최고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과 사탄, 성도와 사탄의 가장 큰 피 튀기는 영적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사탄이라면 전도와 선교하는 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할 것입니다.

6.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할 것이다.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강림 후에 성령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므로, 예수의 부활과 복음을 나가서 전하게 되고 날마다 부흥되어 갔습니다. 사탄이 핍박을 강하게 했으나,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계속 부흥 성장되었습니다. 이때 사탄은 교회 안에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로 불평과 다툼이 일어나게 했으며 파당을 생겨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회가 부흥 성장하지 못하도록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7. 교인들을 시험에 들게 하여 넘어지게 할 것이다.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간질하여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케 만들고 사소한 일에도 분쟁을 일으키게 하므로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며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접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사탄이라면 교인들을 시험에 들게 하여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탄의 작전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어떠한 경우에도 교우간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2018 세계교육선교대회 연다

2월 1-3일, 풀러신학교, 나성영락교회에서

범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대학협의회(PAUA)가 주최하는 2018 세계교육선교대회가 오는 2월 1일(목)부터 3일(토)까지 풀러신학교(총장 마크 레버튼 박사)와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에서 열린다.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10일(금) 오전 11시 JJ그랜드호텔에서 가졌다.

한기형 대회장은 "21세기 아펜셀러 언더우드를 찾는 문화선교집회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스텝들과 나성영락교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는 선교전략상 매우 중요한 선교대회가 될 것이라 생각되며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이 발굴돼 교육선교의 장이 활발히 전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은성 대회장은 "나성영락교회가 교육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인재 발굴과 네트워크가 구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파우아 강성택 사무총장은 "해외 한인선교사들과 교회들에 의해 세워진 대학이 44개이고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초중고교가 810개"라 언급하고 "한인선교사들이 세웠고 교육선교를 하고 있지만 학교들마다 교수들, 교사들이 부족하다. 이번 대회를 통해 교육선교사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PAUA가 주최하는 2018 세계교육선교대회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대회일정은 내년 2월 1일 오후 교육선교 홍보관이 오픈되며 특별초청 선교특강을 갖는다. 2일 오전은 교육선교집회와 기독단체초청 설명회를 갖게 되며 오후에는 교육선교 사역설명회, 맞춤형 선택특강, 교육선교 학술컨퍼런스를, 3일 오전은 교육선교집회, 교육선교특강, 오후는 교육선교사역설명회, 맞춤형 선교특강, 교육선교사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1일부터 3일까지 저녁시간에는 교육선교대회로 갖게 된다. 장소는 오전과 오후는 풀러신학교에서, 저녁집회는 나성영락교회에서 갖는다.

대회 주강사는 손봉호 교수(PAUA법인이사장), 송태근 목사(서울 삼일교회), 임현수 목사(토론토 큰빛교회), 양춘길 목사(뉴저지 필그림교회), 권오문 총장(몰골대학교), 황덕영 목사(평촌 새중앙교회), 김남수 목사(뉴욕 프라미스교회),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구견회 총장(캄보디아 라이프대학), 한기채 목사(서울 중앙성결교회),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 정인수 목사(전 국제 CCC부총재), 김진경 총장(연변과기대), 최복이 대표(본죽대표) 등이다.

▲문의: (213)384-5232, (213)675-6493

〈박준호 기자〉

목회자자녀컨퍼런스 포스터

제 29회 미주목회자자녀 세미나 연다

22-24일 사랑의빛선교교회, 강사 다니엘김 외 4명

제29회 미주목회자자녀 세미나가 개최된다. 영어로 'PMK Conference' 즉 목회자 자녀와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목회자자녀의 자긍심을 찾게 하고 삶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컨퍼런스다.

이번 세미나는 '철인', '이기는 자' 등의 책을 저술하여 깊은 은혜를 전했던 다니엘김 선교사(JGM 대표), 그리고 서울 예정교회 담임목사이며 목회자사모신문 발행인으로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와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 등 대표로 섬겨온 설동욱 목사, 벧엘교회 박태남 목사, 세계비전교회 김성현 목사와 사랑의빛선교교회 윤대혁 목사 등이 강사로 초빙돼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

윤대혁 목사는 "미주에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계시고 많은 PK, MK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준비시켜주신 귀하고 복된 PK, MK들이 아픔과 상처를 풀지 못하고, 믿음과 은혜로 해석하지 못해 괴로움과 갈등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안식과 쉼이 없는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며 "이번에 미주목회자 선교사자녀 컨퍼런스를 통해 미주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자녀들에게도 좋은 시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이번 제29회 미주목회자자녀세미나는 참석한 모든 목회자자녀와 선교사 자녀들에게 삶의 기쁨과 희망을 주고 본인이 목회자자녀와 선교사 자녀라는 자긍심과 기쁨을 가지게 하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 전했다.

추수감사절 기간인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29회 미주목회자자녀세미나의 참가비는 40달러이며 2박3일간의 숙식이 포함돼 있다

▲문의: (562)217-9196

샬롯장로교회 추계 부흥사경회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 추계 부흥사경회가 서울 보라성교회 담임목사 송일현 목사를 강사로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개최됐다. 사진은 송일현 목사가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 〈기사제공: 샬롯장로교회〉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목회학박사원이 주최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세미나에서 첫번째 강좌에서 강사로 나선 이상훈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교회갱신과 선교적 교회' ...이상훈 교수

그레이스미션대, 종교개혁500주년 특별세미나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목사)선교학 박사원장(이병구 박사)이 주최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세미나가 13일 오전 9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웨딩채플에서 열렸다.

첫날 강의는 이상훈 교수(SOMA 대학교 학장, 풀러신학교 겸임교수)가 '교회갱신과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이상훈 교수는 "교회의 사명, 실제사역현장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기반으로 교회갱신운동, 그리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케이스스터디를 하려고 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과거 교회는 어떻게 하면 숫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목회자들이 사역적인 한계를 느끼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목회의 본질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다. 이러한 고민은 목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지만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 설명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지향하고 있던 미국교회의 모델은 새들백교회와 윌로크릭교회였다. 하지만 윌로크릭교회가 그들의 사역이 실패했다는 자평이 나오자 한국교회는 윌로크릭의 모델을 따라가던 것을 중단하고 다른 모델을 찾기 시작했다"고 언급하고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교육적 커리큘럼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귀며 말씀을 청종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의 실수는 실천적 사역에 있어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것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하지 않게 되면 교회는 정체되고 만다"며 "교회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교회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며,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자신의 활동을 구성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차세대 목회 준비 한다...

아주사퍼시픽대학교 제 6회 목회자 컨퍼런스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존 월레스 박사) 신학석사 아시안프로그램(디렉터 변명혜 박사)은 제6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지난 7일 오전 10시 가든스윗 호텔에서 개최했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와 오운철 목사(새생명비전교회)는 '멘토링을 통한 차세대 목회준비'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강 목사는 "영적인도자로서 멘토링은 중요하다"며 "영적안내자로서 멘토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는 멘토링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주사퍼시픽대학교 아시안프로그램이 주최한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강사로 나선 강준민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그는 "미숙한 멘토링은 자기를 보게 하지만 성숙한 멘토링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 특별히 사람들을 섬길 때 내 사람이라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훌륭한 멘토는 멘티를 존중하며 사역을 공유하며 친구가 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강 목사는 "멘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으면 안된다. 영적인도자를 잘못 만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망치게 한다.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나만 보게 하는 건 건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운철 목사는 "리더십이 영향력이면 멘토링이 중요하게 된다. 멘토링은 능력부여위한 관계적 경험이며 멘토링을 통해 성품적인 걸 나눠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는 '차세대 목회지도자의 영성회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최 목사는 "교회들마다 많은 성경공부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만 학생을 모으기 어려울정도로 잘 안된다. 등록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이들이 많아 그들을 어떻게 목양을 해야 할지 고민된다. 13-18세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하루 평균 9시간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영상매체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아이들이 즐겨보는 영상매체 중에 좋지 않은 것들이 많다. 팝송의 가사들, 그리고 한국 아이돌들이 부르는 노랫말은 가사가 매우 선정적"이라 설명했다.

그는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시기는 말씀이 없는 시기였다. 오늘날은 말씀에 목말라하지 않는 시대다. 하지만 기독교역사를 볼 때 영적부흥이 일어난 시기는 가장 메말랐을 때고 무감각한 시기였다. 그리고 영적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일을 했을 때다. 즉 본질에 충실하게 될 때"라며 "다음세대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세 번째 강의는 김한요 목사(베델한인교회)와 저스틴김 목사(베델한인교회)가 '차세대 목회준비의 실례'라는 제목으로 했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east

뉴저지교협 회장 이취임식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윤명호 목사) 제 31회기 회장 이취임식이 12월 4일(월) 오전 10시 뉴저지장로교회(담임 김도완 목사) 팰팍 성전에서 열린다.

▲문의: (201)461-5055, (845)499-1991

뉴욕겟세마네교회 가을부흥회

뉴욕겟세마네교회(담임 이지용 목사)가 16일(목)부터 19일(주)까지 김수태 목사를 초청, 가을부흥회를 연다. 시간은 평일 저녁과 새벽, 주일은 1부 오전 11시, 오후 2시.

▲문의: (516)520-2004

어린이 사역자 청빙

뉴욕 주사랑장로교회(KAPC, 담임 정준성 목사)가 파트타임 어린이 사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개혁신학교 졸업자나 재학 중으로 어린이 사역에 신실한 열정을 가진 영어사용자. 이력서(사진 포함)와 신앙 간증 및 사역철학서, 추천서 2장이 필요하다.

▲문의: (718)229-8855

동부개혁장신 2017 장학기금 위한 두 번째 찬양축제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동부개혁장신 2017 장학기금 위한 두 번째 찬양축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 2017년도 장학기금을 위한 찬양축제 두 번째가 지난 8일 뉴욕 예사랑교회(담임 손한권 목사)에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손한권 목사 인도로 기도 김주현 학우, 성경봉독 김선화 학우, 동부개혁장신 합창단의 찬양후 김성국 목사(이사장, 퀸즈장로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했다.

김성국 목사는 "아나돗 예레미야"(렘1:1-1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신학교 갈 때 방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하나님은 지명한 자를 놓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아나돗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허물 것 허물고 세울 것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격려했다.

2부 찬양은 합창단의 찬양과 이재환 전도사의 독창, 박매자 학우의 간증이 있었으며 김성국 목사의 축도와 이규본 학감의 광고로 마쳤다.

올해 마지막 찬양축제는 15일(수) 저녁 8시 퀸즈장로교회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제 1회 뉴욕친선탁구대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가 지난 7일 오후 5시 동 교회당에서 제 1회 뉴욕 친선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는 엘림시니어센터를 운영한 바 있는 이만호 목사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구성한 좋은건강생활탁구동호회(회장 James Lee) 50여 명이 참가했다.

동호회는 뉴욕탁구장(이춘승 사장)과 연계해 할인혜택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탁구를 치고 있다.

한편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무료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픈하며 코치가 교습한다.

〈기사제공: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제 1회 뉴욕친선탁구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예수사랑 실천하는 교협"

뉴욕교협 44회기 회장, 임실행위, 이사장 이취임예배

뉴욕한인교회협의회 제 44회기가 지난 13일 회장 및 임실행위원, 32대 이사장 이취임예배를 드리고 출범했다.

"예수사랑 실천하는 교협"을 표어로 출발한 44회기 회장 이만호 목사는 취임인사에서 "부회장으로 행복한 1년을 지냈다"며 "예수사랑 실천을 위한 소통과 연합의 교협으로 전문성 살린 분과를 지향하고, 미자립교회와 불우 이웃에 버팀목이 되는 교협, 동포사회에 영적 기구로 실제적 도움이 되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말했다.

이임하는 김홍석 목사는 "지난 회기동안 도움을 줬던 큰 교회 및 회원교회에 감사한다"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혁의지를 다짐하고 이민자보호교회, 휴스턴 재해동포 지원, 종교개혁지 순례 등의 행사를 했다"고 말하고 "44회기에도 회원교회들의 도움이 넘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부회장 정순원 목사 인도로 기도 송병기 목사, 성경봉독 이계훈 장로, 특송 뉴욕장로성가단, 말씀 김남수 목사, 헌금기도 손성대 장로, 헌금특주 유진웅 교수, 축도 박희소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남수 목사는 "사도 바울의 교회관"(고후1:1-2)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관(prospect)이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한 연설에 나타난 한국역사관을 칭찬했다.

뉴욕교협 44회기 회장, 임실행위, 이사장 이취임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김 목사는 "우리는 교회와 끊을 수 없는 사람들로 교회가 모인 교협이 올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보고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불렀다. 이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서 사랑과 섬김에서 오는 목사의 권위를 세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2부 이취임식은 총무 김희복 목사 사회로 기도 신현택 목사, 이임사 김홍석 목사, 교협기 인계, 권면 정익수 목사, 축사 윤명호 뉴저지교협회장, 사라김 뉴욕한인회 이사, 최영수 변호사, 축하메시지 김기환 뉴욕총영사 대독, 축송 남성중창단, 취임인사 이만호 회장, 김주열 이사장, 강영규 평신도부회장, 위촉장 수여, 공로패 증정(김홍석 목사, 임병남 목사, 변호사 3명), 광고 김진화 목사, 폐회 및 오찬기도 김상태 목사회 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권면한 정익수 목사(뉴욕총신대학 총장)는 빌립보서 2장 3절을 언급하며 "①선임자의 장점을 계승하라 ②강하고 담대하게 법대로 나가라 ③교회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 ④정금 등대가 되라"고 권면했다.

새 임원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만호 목사 △부회장 정순원 목사, 강영규 장로 △총무 김희복 목사 △협동총무(수석) 황태연 목사 △서기 김진화 목사 △부서기 정기태 목사 △회계 이광모 장로 △부회계 한석진 목사 △이사장 김주열 장로 △감사 김영철 목사 김기호 목사 이상호 집사.

이외에 44회기는 협동총무 43명, 분과위원회 55명, 특별분과위원회 37명 등 총 148명의 임실행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특별분과위원회에 신년하례준비위원회 박태규 목사, 부활절 준비위원회 이준성 목사, 할렐루야준비위원회에 이광희 목사를 각각 선임했다.

〈유원정 기자〉

베이직교회 KAPC 교단가입 및 이상만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베이직교회

KAPC 가입 및 이상만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

뉴저지 베이직교회가 지난 12일 오후 5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가입 및 이상만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뉴욕동노회(노회장 황상하 목사)의 주관으로 열린 예배에서 베이직교회는 교회비전을 소개하며 "우리 베이직교회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basics)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단순한 가르침이나 행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롱맨).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하면서 단순한 가르침으로서 지금도 살아있으며 여전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매일 영적인 기적을 경험하며, 세상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선포했다.

이상만 목사는 답사를 통해 "첫째,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른 방향을 정하고 벽돌을 쌓은 심정으로 말씀과 기도로 차근차근 성도들에게 기초를 다지도록 하겠다. 둘째, 교인들이 행복감, 사랑과 따뜻함을 느끼도록 노력하겠다. 셋째,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예배는 황상하 목사 인도로 기도 허민수 목사, 성경봉독 김영일 목사, 설교 장기수 목사("기본이 중요합니다", 행6:1-7), 봉헌송 오운자 사모, 헌금기도 박희근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담임목사 취임식은 노회장의 인도로 서약, 공포, 취임패 증정으로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권면 이길호 목사, 축사 목사에게 김남수 목사, 축사 교우들에게 조문휘 목사, 답사 이상만 목사, 경과보고 함경옥 장로, 전교인 말씀암송(복있는 교회, 시1편), 축가 노회목회자, 광고 김파 집사, 축도 조영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상만 목사는 생수의강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한 바 있다.

베이직교회(Basic Church of NJ) 주소는 385 Howland Ave., River Edge, NJ 07661이며 연락처는 (201)403-4711, basicfrombasic@gmail.com.

〈정리: 유원정 기자〉

중소형교회 유스를 위한 "YouthWave 수련회"

지난 9년간 뉴저지 지역에서 중소형 교회를 섬겨왔던 CSO(Church Support Organization)가 유스사역 단체인 Streamside Ministry와 함께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개최한다.

교회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기 어려운 교회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유스 수련회는 "The Way"라는 주제로 롱 브랜치 지역에 있는 Ocean Place Resort&Spa 호텔에서 열리게 된다. 30여년간 유스 사역을 전문적으로 섬겨온 Duffy Robbins 박사와 초대교회 박형은 목사가 주강사로 나서며 다양한 세미나가 준비돼 있다.

특히 이번 수련회동안 유스 사역자를 위한 트랙이 운영돼 유스 사역자들의 고민과 현안들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

주최측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가치관과 신앙을 지켜낼 뿐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차세대가 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차세대들이 "The way" 되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확신을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게 되며 티셔츠와 숙박 및 식사 등 모두를 포함한 등록비는 140달러.

자세한 문의는 정인식 목사(201-696-8044)나 www.youthwav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공: CSO〉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0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08:00
새벽기도회: 오전 05:30
금요기도회: 오후 08:0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nygo4tgc@yahoo.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61-9199, Fax.(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moakyang.org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fk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yahoo.com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http://www.cpcofny.org
Tel.(718)279-2757, 2758, Fax.(718)279-1823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18)461-7835, CP.(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Fax.(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5:00
영어예배: 오후 1:00
Tel.(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Fax.(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q.org

퀸즈한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718)672-1150 Fax.(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q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www.pcov.org
Tel.(604)584-5780, Fax.(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밤예배: 오후 7:00
Tel.(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3,부 스페니쉬 설교)
Tel.(595)21-574-985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Fax.(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종교개혁500주년...이민교회 진단하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주관 기념 개혁포럼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주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개혁포럼이 7일 오후 1시 30분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렸다. 포럼은 4명의 발제자와 3명의 논찬자가 나와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서 진행됐다.

'종교개혁 500주년과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의 현재적 진단'이란 주제를 들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종기 박사(충현선교교회 담임)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이민교회는 중세말의 타락한 사회에 새로운 충격과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제공했던 개혁교회의 역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한인교회가 세대교체 문제, 교역자와 당회 갈등, 교인의 수평이동, 한인신학교 난립, 신학교육의 질적 저하, 신학의 보수성과 공적 신앙에 대한 결여 등 당면한 문제들 앞에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적 영성을 고취하며,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자의식을 회복하고 공적 신앙을 통한 신학적 반성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주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개혁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종교개혁 500주년과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의 미래적 전망'이란 주제로 나선 정성욱 박사(덴버신학교 기독교신학교수)는 "종교개혁이 회복한 복음은 오늘날 이민교회에 대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루터의 '거지의 영성'이 던지는 도전, 칼빈의 '무명의 영성'이 던지는 도전 등 7가지의 근본적인 도전을 던지며 진정한 참회야 말로 이민교회의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연경 박사(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교수)는 '종교개혁 500주년과 현대 교회의 위기 진단과 해결 모색'에 관해 발제했다. 권 교수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크게 5가지로 담임목사 세습으로 대변되는 돈을 향한 욕망, 초월을 향한 열망을 세속적 욕망으로 대체한 번영복음, 목회자의 제왕적 리더십이나 종교적 영웅숭배, 목회자의 성범죄, 무조건 믿는 맹신자"라고 전하며, "그래서 필요한 것이 본질의 회복인데 성경의 가르침을 숙고하고 복음의 본질을 되새기려는 열정, 그 복음적 원리 위에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땀 흘림, 이를 통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이상명 박사(미주장신대 총장)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사회'란 주제를 통해 "전 세계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속한 변화와 발전에 더해 초연결과 초지능으로 특징지어지는 미래사회의 엄청난 변화의 속도 앞에 또한 IT 기반 위에 물리학과 생물학이 융합해 만들어내는 여러 다양한 기술들은 우리 생활 곳곳에 파고들어 개인의 라이프와 가치관, 세계관, 영성, 사회구조와 세계질서를 깊고 광범위하게 바꾸어 놓을 것"이라며, "이런 격변기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는 과학기술을 맹신한다든지 낡은 종교관의 잣대로 그것을 무조건 터부시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또한 과학에 내재된 물질적 욕망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며 사회와 소통해 이제 교회는 내부 개혁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여러 질문과 문제에 대해 새로운 비전과 답변을 제공해야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들의 발제에 이어 이승현 박사(ITS총장), 고태형 박사(선한목자교회 담임), 송인서 박사(미주장신대학교 교수)가 논찬자로 나서 발제자의 발제내용을 논찬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시각장애인 장학기금마련 찬양의 밤

또감사선교교회(담임 최경욱 목사)는 시각장애인 장학기금마련 찬양의밤을 12월 1일(금)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문의: (323)225-9191

밸리지역 연합감리교회 추수감사 연합예배

밸리지역 연합감리교회 추수감사 연합예배가 22일(수) 오후 7시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담임 조셉 최 목사)에서 갖는다.

▲문의: (818)-886-1555

남가주새소망교회 목사위임, 임직감사예배

남가주 새소망교회는 김성원 담임목사 위임, 헌당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감사예배를 26일(주) 오후 4시에 갖는다. 또한 24일(금)부터 26일(주)까지 김동호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말씀집회를 갖는다. 말씀집회의 주제는 '복음과 교회'다.

▲문의: (562)674-3016

어린이 뮤지컬 공연

어린이선교 공연단 리틀르리머(단장 한신옥)는 라미라다 극장에서 '빈방 있습니까?' 공연을 갖는다.

▲문의: (714)422-8588

남가주 목사장로 부부 찬양단 제10회 정기공연이 세계아가페선교교회에서 열렸다

아둘람선교회에 선교비 전달

남가주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제10회 정기연주회

남가주 목사장로 부부 찬양단(단장 강평근 목사, 지휘 이재경 목사) 제 10회 정기연주회가 11일 오후 6시 세계아가페선교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기연주회는 '사랑해요 주님', '오직 예수', '원해', '그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등 성가곡과 찬양곡을 불렀으며 한곡 한곡을 마칠 때마다 관객들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LA Young Players(지휘 줄리아조), 에버그린 여성합창단(지휘 노혜숙), LA남성선교합창단(지휘 원영진), 이머징 영아티스트 젠리가 찬조출연해 연주회를 빛내주었다.

한편 이날 직전단장 박재웅 목사에게 공로패를, 이사장 양기호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아둘람선교회 임정수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외대동문회 합창단 제4회 정기공연

남가주외대동문회 합창단(단장 김재권, 지휘 오위영 목사) 제4회 정기공연이 12일(주일) 오후 6시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은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찬양의 심포니' 등 성가곡, '강건너 봄이 오듯', '고향의 노래' 등 가곡, '넬라판타지아', '오페라의 유령', '돈 크라이 포미 아르헨티나' 등 뮤지컬곡을 엮은 '콘서트 셀러브레이션 코랄' 등 외국곡, 그리고 '경복궁 타령', '농부가' 등 민요로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선보였다. 또한 한국 전통 음악그룹 '해밀', 김인용 동문가족, 박트리오가 찬조출연하여 이날 공연을 빛내주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외대동문회 합창단 제4회 정기공연이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연세사랑나눔 콘서트에서 밀알수어찬양팀과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가 콜라보공연을 하고있다

연세 사랑의 나눔 콘서트 성황

종교개혁 500주년 추수감사절 기념

종교개혁 500주년 추수감사절 기념 연세 사랑의 나눔 콘서트가 12일 오후 4시30분 생수의강선교교회(담임 안동주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소희 아나운서(미주복음방송) 사회로 시작된 사랑의 나눔콘서트는 랜디김 밴드, 남가주연세콰이어(단장 이상은, 지휘 이정욱, 부지휘 이사효), 디스어빌리티오케스트라(디렉터 박현주), 남가주 밀알수어찬양단, 하모니아 챔버 콰이어(지휘 박세연), 미주여성코랄(지휘 오성애), 오렌지선교합창단(지휘 장진영), 소프라노 지경 등이 출연했다.

또한 이날 베트남 찬양팀과 과테말라 사랑의베다니찬양팀이 출연해 타민족과 함께 추수감사절이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다.

연목회 회장 김기동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추수감사절을 맞아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까 고민했다"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웃에게 작은 사랑을 나누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에 모인 헌금과 후원금은 오는 12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라면을 나누는데 사용하게 된다.

〈박준호 기자〉

제3회 보블리스 선교합창단 정기연주회에서 보블리스 선교합창단이 청중들과 함께 헨델의 메시야 중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다

제3회 보블리스 선교합창단 정기연주회

제 3회 보블리스 선교합창단(단장 유영애, 지휘 김철이 목사) 정기연주회가 11일 저녁 7시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연주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갈길을 밝히 보이시니', 헨델의 메시야 중 '주의영광', '우리를 위해 한 아기 나셨네', '주께 영광' 등을 불렀으며 앵콜곡으로 '만왕의 여호와'와 '시편 150편'을 불렀다.

또한 테너 오위영 목사와 피아노 트리오(바이올린 윤진영, 첼로 에릭최, 피아노 김신영), LA크리스천 싱어즈(단장 김철이 목사)가 찬조출연해 이날 공연을 빛냈다.

유영애 단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제 3회 정기연주회를 맞아 보브리스 단원들이 온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곡들을 지극히 높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날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며 "이 연주회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참석하신 분들께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장신대 개교 40주년 후원음악회에서 본교 콘서트콰이어가 찬양하고 있다

미주장신대학교 개교40주년 후원음악회 성황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개교 40주년 후원음악회가 지난 6일 저녁 7시30분 남가주동신교회(담임 백정우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유영기 이사장의 인사말, 박성규 KPCA총회장 축사에 이어 시작된 후원음악회는 미주장신콘서트콰이어(지휘 조혜정 교수)가 무대에 올라 '주는 피난처', '그가(나레이션 전우진, 솔로 강미영 소프라노, 박동진 테너)', 넬라판타지아' 등을 불렀다.

특별히 '주보다 더 날 사랑하는 이 없네'는 뽕망치 등 소품을 이용하는 등 관객들에게 유쾌함을 선사했으며, '주와 같이 길가는 것'은 뮤지컬 무대를 연상하기에 충분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이날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냈다.

또한 카이로스싱어즈와 가야금 이정화, 최은원 소프라노, 첼로 박수정이 찬조출연해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였다.

〈박준호 기자〉

〈5면에서 계속〉

그 이유는 자기 언니 레아에 대한 아이 낳기 경쟁 때문이었다. 그러면 야곱은 그것을 거부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전혀 거부하지 않고 선택을 한다. 자식을 낳게 되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행복할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인생의 실수와 허물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만, 당사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것이다. 야곱은 마침내 열두 아들과 딸을 하나 얻었다. 그러나 행복이 찾아오지 않았다. 그 집은 언제나 복잡했다. 조용할 날이 없었다. 형제들끼리 싸우고 아내들끼리 싸웠다. 야곱의 젊은 시절은 연애하고 일하고 아이들 낳고 그 사이에서 복잡하게 살다가 젊음의 세월을 다 보내 버렸다. 그뿐인가? 나중에 삼촌을 떠나기 전에 자기는 삼촌 때문에 재산을 모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야곱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일했지, 삼촌을 위해서 봉사했던 것이 아니었다. 가게 주인이 일꾼을 고용할 때를 생각해 보라. 직원을 고용하면서 주급을 약속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을 하면서 보니, 일이 너무 잘되어서 주인이 부요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을 찾아가서 자기 때문에 일이 잘 되고 있는데, 왜? 내게 더 많은 돈을 주지 않느냐고 따진다면, 이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처음에는 일이라도 시켜주면 감사하겠다고 해놓고 마음이 바뀐 것이다. 야곱이 삼촌에게 그러한 태도를 가졌던 것이다.

참 이민생활의 행복

성경은 야곱의 인생을 지렁이에 비유한다. 이스라엘을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질에 대한 표현이다. 왜 하필 지렁이에 비유를 했을까? 그것은 인간의 세상살이와 지렁이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렁이는 냄새나고 썩고 부패한 더러운 곳에서 산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시궁창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또 지렁이는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좋아한다. 그래서 지렁이는 눈이 없다. 사람도 빛에 거하여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보다, 타락하고 방종한 삶을 좋아한다. 또 지렁이는 무골충이라 뼈가 없어서 징그럽다고 한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지 못한 존재이다. 의리도 없고, 은혜도 모른다. 배신하고 배반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지렁이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이민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난리다. 그렇다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싫단다. 그 속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온통 지렁이 같은 생각들이다. 돈과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다. 한마디로 행복하지 못하다. 지렁이와 같이 시궁창 같은 세상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몸은 씻지 않은 채 가끔씩 세수하듯 예배드리고 교회를 다니니 늘 같은 결론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더 들어가 보면, 자기 생각에 잔뜩 매여 있는 것을 본다. 견고한 철옹성과 같이 깨어나지를 못한다.

나이가 들면서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사람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강해지고 더러워지는 사람이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거지같고 악질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기의 잘못된 방향을 바꾸려고 애를 써야한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서 있다가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져야 한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날마다 방향을 새롭게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시궁창을 좋아해서 수렁에 빠져드는 지렁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예배가 있는 곳으로, 교회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거기에 참된 거룩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이 있다. 힘든 세상에서 유일한 행복의 길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davidnjeon@yahoo.com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에서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관계자들이 공연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디렉터 박현주 전도사, 지휘 최경은 박사) 제 2회 정기연주회가 11일 오후 1시30분 홀랜벡 팜스 리타이어먼트 센터 채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연주회는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했다. 특별히 'Battle Hymns of the Republic'을 연주할 때는 이날 연주회장을 찾은 모든 관객들이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박수를 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주회장을 찾은 한 관객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연주를 보면서 마음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을 갖게 됐다"고 했으며, 미쉘이 오픈뱅크 웨스턴 지점장은 "공연을 보고 저희 은행에서도 이런 좋은 공연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강소형 교회 시대가 온다 (1)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숙… 교회 개혁의 주역으로

1. 왜 작은 교회인가

작지만 강한 교회, 이른바 '강소(强小)형 교회'가 한국교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강소형 교회는 교회건물 증축이나 교인 수 증가엔 관심이 없다. 대신 교회가 커지면 분립(쪼개기)에 나서고, 지역사회와 주민 속으로 파고들어가며, 다음세대를 키우는 데 힘을 쏟는다. 5회에 걸쳐 교인 수 300명 미만의 강소형 교회 현장을 들여다보고 작은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조망해본다.

경기도 성남의 한모(37)씨는 지난해 2월까지만 해도 교회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에게 교회는 헌금과 봉사를 강요하는 곳일 뿐이었다. 한씨는 동네에 있는 교인 수 10명 남짓의 A교회에 몸담으면서 색안경을 벗었다. 헌금이나 봉사를 강요하지 않고 일상을 편하게 나누며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 한씨는 "공식 모임은 화요일 성경 공부와 주일 예배지만 거의 매일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기도 제목을 나눈다"며 만족스러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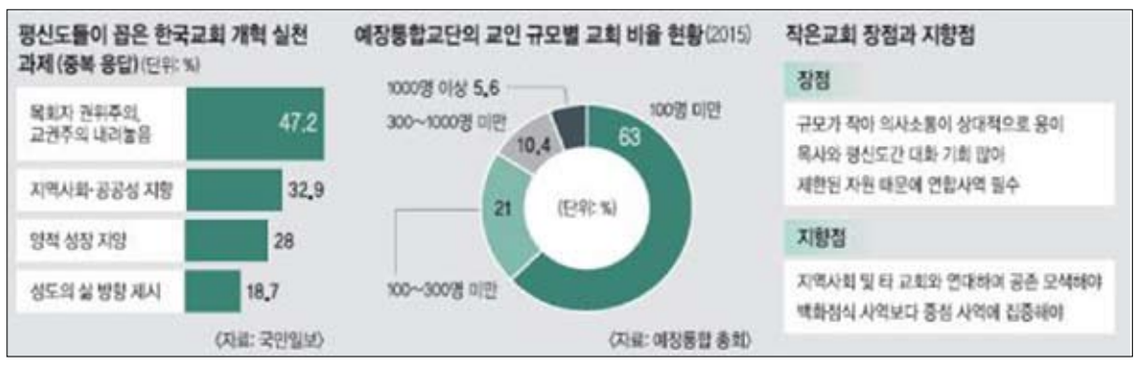
서울 동작구에 사는 하모(41)씨는 청년이 많은 서울의 유명교회에 다녔다. 체계적 프로그램, 젊은 분위기 등 모든 게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목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수직적 구조가 눈에 밟히기 시작했다. 결국 3년 전 서울 동작구에 있는 출석 교인 70명 규모의 B교회로 옮겼다.

하씨는 "대형교회 같은 수직적 구조 없이 모두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지지고 볶으며 가족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며 "교인들이 서로 친하다 보니 지역사회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까 함께 고민하며 동네 도서관 만들기, 공유주택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은 교회가 교회 개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숙을 추구하고, 목회자 중심의 수직적 구조를 벗어나 수평적 가족공동체를 지향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강소형 교회'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는 기존 교회의 모습에 실망한 가나안 성도의 증가, 포스트모던 시대에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원론적으로 고민하고 사역을 모색하는 '선교적 교회'의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교회 규모를 키우는 데 치중하기보다 자기만의 사역 정체성을 가진 작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나가자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는 배경이다.

국민일보가 지난 3월 발표한 '한국교회 개혁 실천 과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신도가 꼽은 주요 개혁과제는 '목회자의 권위·교권주의 내려놓음'(47.2%) '지역사회·공공성 지향'(32.9%) '양적성장 지양'(28%) 등의 순이었다. 성직중심주의와 개교회중심주의, 성장지향주의의 탈피를 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은 것이다.



작은 교회는 이 같은 개혁과제를 실천할 주된 토양이 될 수 있다. 규모가 작고 인력과 재정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작은 교회는 대형교회보다 의사소통이 쉽고, 목사와 평신도 간 대화의 기회가 많아 수평적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다"면서 "제한된 재정과 인력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다른 교회나 지역주민과의 연합 사역에 열린 자세를 갖게 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의 전체 교회 중 대부분은 작은 교회다. 한국교회 80% 이상은 교인 수 300명 미만의 소형교회다. 대표적인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은 2015년 기준 8843개 교회 중 재적교인 수 300명 미만의 교회가 7422개(84%)였고 100명 미만인 교회가 3986개(63%)나 됐다.

전문가들은 교회 생태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작은 교회가 규모를 키우려고 경쟁하기보다 역동적으로 새로운 사역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양희송 청어람ARMC 대표는 "양적 성장 중심의 60-70년대식 교회 운영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작은 교회들이 지역주민이나 다른 교회들과 연합사역을 펼치며 공존 방법을 찾아야 교회 생태계가 성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대형교회처럼 백화점식 사역을 하기보다 작은 교회가 저마다 중점 사역을 선정해 집중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사이비 '전능신교' 한국 포교 노린다

피해 중국인들 기자회견…난민신청 악용

중국 사이비 종교인 전능하신하나님교회(전능신교)가 난민신청을 통해 한국을 포교 전진기지로 삼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능신교 때문에 피해를 본 중국인들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능신교에 빠진 가족들이 연락을 끊고 한국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고 있다"면서 "사이비 종교집단의 난민신청은 사기"라고 주장했다.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과 '종교와진리'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전빈(31·여)씨는 "2015년 4월 출근한다며 집을 나간 남편이 실종됐는데, 비자면제 관광객으로 제주도에 들어와 전능신교 신도들과 함께 단체로 난민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서 "지난해 1월부터 한국에서 남편을 애타게 찾고 있지만 생사조차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전씨는 "착하던 남편은 전능신교에 빠진 뒤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연락조차 않는 매정한 사람으로 돌변했다"면서 "3년째 홀로 5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에게 아빠의 부재는 너무 크게 다가온다"고 울먹였다.

산시성에서 온 이준걸(32)씨도 "멀쩡하게 직장을 다니던 아내가 2015년 3월 갑자기 집을 나갔는데, 수소문 끝에 상하이 푸둥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탔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이후 한국의 공중전화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아내 옆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말이 들렸다. 그게 아내와의 마지막 통화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전능신교 때문에 아내의 외조부는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부친과 모친은 심장병이 생기는 등 가정이 파탄 났다"면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포교하는 전능신교가 한국에 뿌리 내리면 중국처럼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능신교 신도들이 제주로 향하는 것은 무비자로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서다. 정일배 변호사(믿음합동법률사무소)는 "전능신교가 한국의 난민법을 악용해 행정소송까지 벌이는데, 이들은 최대 5년간 외국인 신분을 보장받고 주거와 의료, 교육혜택까지 누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능신교가 가족과 연락을 끊는 것은 자유롭게 전화통화를 하고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면 그때부터 한국에 남은 다른 신도들이 난민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라며 "법무부는 한국이 사이비 종교집단의 전진기지가 되지 않도록 전능신교 신도들의 난민신청을 모두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능신교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신도들이 한국으로 피신하고 있으며, 현재 500여명이 난민신청을 한 상태"라면서 "신도들이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것은 중국정부의 전화도·감청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한부 종말론 주장, 탈퇴자에 대한 살인 폭행 협박은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낸 유언비어"라면서 "예수님이 남자의 육신을 입고 재림하셨으며, 여자의 육신을 입고 재림하신 그리스도는 중국정부가 찾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고 말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능신교 피해자들은 8일 제주지법 앞에서 '우리 가족은 난민이 아닙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전능신교 신도들이 난민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13일에는 합숙시설이 있는 강원도 횡성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전능신교는 지난해 지하 1층, 지상 4층 9662㎡(2923평)짜리 강원도 횡성 둔내 유스호스텔을 매입하고 포교활동의 거점으로 삼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다문화 선교팀' 뜬다

'열방과 함께하는 선교' 주제 포럼 개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거주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동계올림픽 종목에 강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선수와 관광객이 대거 방한할 것으로 예상돼 적지 않은 선교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다문화사역팀과 중국 및 러시아·몽골의 스포츠선교 관계자들은 7-8일 경기도 구리 갈매중앙로 예본교회(안영혁 목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선교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주제는 '열방과 함께하는 선교'였다. 참석자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지역교회와 연계한 자원봉사 및 선교활동 방안을 모색했다.

선교활동은 우리나라 선수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입국할 선수와 관계자,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기장 인근 교회와 카페 등에서 영어와 러시아어·중국어·일어 등 언어별 문화행사를 진행키로 했다. 각국의 민속춤과 노래, 연주, 태권도시범, 연예인 및 유명인사의 전도 간증 집회를 연다. 거리 퍼포먼스와 노방전도 활동도 진행한다. 비보이와 브라스밴드 공연, 찬양과 경배 등이 이어진다.

특히 구(舊)소련 지역 국가, 중국 관람객과 선수들을 대상으로 집중 선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동계 패럴림픽 때 러시아교회와 밀알선교단이 협력해 다문화 아웃리치팀을 구성한다. 러시아 및 국내 다문화교회의 선교학교 및 선교지도자 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기도처소와 성경 및 전도책자, 생활필수품 등을 제공한다.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소속 교회들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연합집회와 기도회를 열고 있다. 미소 짓고 인사를 잘하자는 뜻으로 '미인운동'도 벌이고 있다.

다문화선교협의회 순회선교사 우동수(러시아) 목사는 "한국에서 30년만에 열리는 올림픽을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한 국제선교 협력과 국내 이주민 다문화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교회부흥과 선교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교활동에는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회장 서석근 목사) 동계특별위원회와 세계스포츠선교회(실무회장 최현부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다문화선교협의회(사무총장 오영섭 목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父子 바통터치 끝' …새노래명성교회 사임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위임목사 공식 취임

김하나 목사가 서울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공식 취임했다.

12일 저녁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명성교회에서는 '김삼환 원로목사 추대 및 김하나 목사 위임예식'이 열렸다. 앞서 김 목사는 같은 날 오후 새노래명성교회를 사임했다.

이날 새노래명성교회 주보에는 '담임목사가 사임한다'는 짤막한 문구만 게재됐다. 김 목사는 주일 3부 예배 설교 후 사임을 공식 발표하면서 "아무 생각을 할 수 없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을 간절히 구한다"며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 교회와 나라를 도와 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명성교회로의 청빙에 대한 세간의 지적에 대해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 피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다"면서도 "결정에 대한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성도들은 김 목사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삼환 원로목사는 이날 명성교회 주일예배 광고시간에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강단을 김하나 목사가 이어받게 된다"며 "그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38년을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고, 헌신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로목사는 주일 4부 예배를 인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임예식 개최는 11일 열린 명성교회 당회에서 결정됐다.

김 원로목사는 오전 예배에서 "원래는 한 달 정도 후에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모시고 위임예식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장로님들이 검소하고 조용하게 주일 찬양예배 때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해 따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 목사 취임에 대해 반대하는 교회내 일부 여론을 감안한 듯 "제가 (성도로) 명성교회에 있었다면 김하나 목사 지지 안 했을 것이다. 제가 명성교회 교인이었다면 김삼환 목사를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은 저보다 귀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날 저녁 위임예식에 참석이 예정됐던 김장환(극동방송 이사장) 목사와 소강석(새에덴교회) 목사 등은 실제 행사에 참석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장통합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불법 임원회에 전하는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명성교회가 법과 원칙, 절차와 질서를 무시하고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청원 건을 관철하려는 과정에서 작금의 노회 파행이 야기됐다"며 "김 목사의 위임예식이 강행된다면 현 동남노회 임원회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번갯불에 콩 볶듯…종교인 과세 추진하는 정부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추진 일정표 보니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종교인소득 과세 준비가 처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달 국회 한 의원실에 제출한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 시나리오'와 '종교인소득 과세 추진 현황 및 일정'을 확인한 결과 같은 달 추진키로 계획한 일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만든 시나리오는 지난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종교별 소득 지급체계에 따른 과세대상 여부를 상세히 수록하는 안내 책자를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세청 사이트 내 홈택스에 안내 페이지만 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납세 안내는 홈택스에 게시되는 게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노회와 교구 등 종교단체에 과세를 설명키로 한 것도 지난 달 25일이 돼서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처음 실시할 수 있었다.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한 추진일정조차 제때 지켜지지 못한 것은 기획재정부의 준비가 늦춰지는 데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달 "기재부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내부 집행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계획했다. 하지만 8일 예정됐던 종교계와 기재부의 토론회가 취소되는 등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다.

이에 올해 중 마무리하기로 한 계획들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달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제도 홍보를 진행키로 했다. 다음달에는 "처음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방법 등을 우편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안내 책자 등이 발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모두를 해결하기에 7주는 빠듯하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내년 일정은 더욱 바쁘다. 원천징수를 시행하는 종교단체는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매달 납부하는 단체의 경우 당장 오는 1월부터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승인 통지를 해야 한다. 반기별로 신고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7월 1~6월분을 납부해야 한다.

2019년에는 연말정산과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남아있다. 국세청은 내년 4월 지급명세서를 기반으로 한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늦어도 8월 개설키로 했다. 2019년 2월 연말정산 방법을 안내해 3월 10일까지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아야 한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오는 14일 오전 7시에는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기재부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주재로 국회에서 기재부와 종교인의 공개 간담회가 열린다.

2017 한국교회개혁상 이말테 목사 수상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회(대표회장 설동욱 목사, 교회일치위원장 안준배 목사)는 2017년 11월 9일 오전 10시 30분 그랜드앰배서더 호텔 도라지룸에서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회 제28회 정기총회와 겸해 2017한국교회개혁상 시상식을 하고, 루터대학교 교수 이말테 목사를 시상했다.'

이말테 목사는 독일 루터교회 선교사, 루터대학교 교수로서 '서울에서 만난 루터'를 저작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 개혁의 지표가 되게 했다. 한복총 포럼과 2017종교개혁500주년포럼에서의 발제와 강연으로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95개조 논제를 한국교회 개혁으로 심화해 한국교회가 본질회복으로 다가서는 가교가 되게 해 2017한국교회개혁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 목사는 현재 루터대학교 신학과 실천신학 교수로 재직중이며 CBS 성서 학당 강사 등 미디어와 인터넷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세계성령중앙협의회에서 개최하는 홀리스피리츠맨 메달리온 교육자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이말테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2017년에 한국에서 16세기의 유럽 종교개혁과 특별히 마르틴 루터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개신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요한 해였습니다. 제가 전보다 바빴습니다. 수많은 발표와 한 권의 작은 책을 통하여 한국 개신교회의 개혁에 기여하려고 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스스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적극적인 개혁을 위한 구상과 실천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개혁의 과정에서 실천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어려운 결정들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수상이 저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께도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상장, 상패가 수여됐다.

〈기사제공: 한복총〉

당국 "종교인 과세, 시범시행처럼 처벌 않도록 노력"

"종교인 과세 시범시행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정을 어겼다고 처벌하는 일은 없게 시행과정에서 노력하겠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교계의 종교인 과세 유예 요구에 대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고 차관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교인 과세 시행은 하되 처벌은 유예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처벌도 그렇고 제도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종교 활동 자체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당회 등 의사결정기구에서 승인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종교 활동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걸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위 공동위원장인 소강석 목사도 "연착륙이 안 되더라도 기재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조세 마찰을 줄이는 범위에서 준비한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며 내년 시행의 불가피성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위는 사례비와 생활비 등 종교인 '순수 소득'만을 과세할 것과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포함하지 않는 내용을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명시해 오는 18일까지 문서화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 소 목사는 "교회는 11월 중 예·결산이 모두 끝나는데 정부는 아무런 확정 없이 구두약속만 한 상태"라며 "말로만 걱정하지 말라 할 것이 아니라 문서화해야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도소 선교칼럼 (32)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용서를 구한 메리

교도소 예배에 참석하는 팸은 20대 중반에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입니다. 하루는 감정이 많이 상한 듯 그녀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팸의 감방 안에 한 재소자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입니다. 하지만 팸은 그녀를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팸이 자신의 얼굴에 침 뱉은 사람을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며 그녀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에 저 또한 많은 은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누가 팸에게 침을 뱉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늘 개인 상담을 요청하는 메리를 상담하기 위해 교도관들에게 그녀를 보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교도관들은 메리가 다른 재소자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며 그녀가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교도관들에게 메리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그녀를 설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메리가 팸의 감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감방 안에서 기도 모임을 꾸준히 참석하는 메리는 항상 명랑하고 잘 웃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로 실수를 하곤 하지만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침까지 뱉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메리에게 다른 사람들 얼굴에 침을 뱉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모함하며 우습게 알고 싸우려고 덤벼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메리는 19년 전에 교통사고로 2살 된 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팸이 사람들에게 메리가 딸을 죽인 살인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팸은 자신의 몸에 딸의 모습을 문신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딸을 잃은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그녀가 딸을 죽인 살인자라는 소문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메리에게 대체로 비방과 모함은 사람들이 꾸며낸 거짓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으면 무고한 사람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울 수가 있다고 설명하며 다른 사람들의 비방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한번이라도 다른 사람이 메리의 얼굴에 침을 뱉은 적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녀에게 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침 뱉은 사람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 습관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자신의 잘못을 상처 받은 이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메리에게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드시 그에게 사과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팸은 메리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의 요청에 따라 잠시 후 교도관들이 팸을 불러왔습니다. 메리는 자기가 팸에게 침을 뱉은 이유를 말했습니다. "메리, 나는 네가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딸을 죽인 살인자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어." 팸은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메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제서야 메리는 자기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에 대해 팸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팸은 미소를 지으며 메리를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팸은 자신이 딸을 잃은 과거의 상처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하나님께 치유를 받도록 그녀와 대화를 나눈 후, 그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재소자의 간증이 들어있는 "용서가 낳은 치유의 은혜"라는 책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상실감과 죄책감, 그리고 자책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메리는 차가 공장에서 잘못 만들어져서 사고를 당한 것이며 그것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랑하는 딸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마음의 치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팸이 마음의 문을 열고 메리에게 용서를 구하게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부분의 교도소에 재소자들은 많은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를 몰라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고통의 결박에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재소자들의 간증이 변화프로젝트 교도소 문서선교를 통해 계속적으로 출판이 되어 많은 재소자들의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변화프로젝트 교도소 문서선교와 재소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yonghui.mcdonald@gmail.com

박해와 선교현장(7)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4)

교회영역: 아프가니스탄에는 공식적으로 교회가 없다. 수도 카불(Kabul)에 위치한 이탈리아 대사관 건물 지하에 있는 작은 예배당이 전부이다. 이마저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외 대사관 직원들과 군인들 소수만이 이용할 수 있다. 탈레반 또는 감시기관에 통보된 모든 모임은 강도 높은 감시를 받게 된다. 종교 집단의 크고 작음은 문제되지 않으며, 모든 모임은 감시의 대상이 된다.

종종 성경 전달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거나 더 큰 단체와 접촉하기 전까지 감시하거나 잠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연행해 심문한다. 물론 기독교 관련 자료들은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인터넷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가까이에서 감시한다. 인터넷 사용은 외딴 지역일수록 접속이 어려워진다.

폭력: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비록 2017년도 기독교박해(W.W.L) 보고기간 동안 일어난 외국인 기독교 노동자 살인은 없었지만 대체적으로 가족들에 의해 개종 사실이 발각된 몇몇 무슬림배경신자(MBBs)들을 처형한 사건은 있었다. 지하 기독교 공동체와 관련되어있을 의심 가는 건물은 표적이 되고 폐쇄되며 심지어 당국의 지지를 얻은 지역주민들에 의해 피해를 입기도 한다.

혐의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 2016년 7월 범죄 조직은 국제구호단체에서 일하던 카톨릭 인도인 여성을 납치한지 6개월 만에 풀어준 사건이 발생했었다.

미래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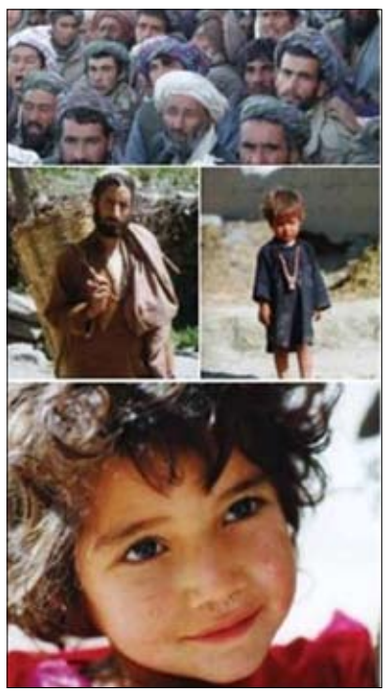
아프가니스탄은 앞으로도 계속 불안할 것이며, 미래상황은 더욱 혹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여전히 수많은 아프간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가고 있다. 기독교인들 또한 고단한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아프간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슬람 탄압과 해외 단체들은 기독교 박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탈레반과 다른 반란군들 및 지역 반군 지도자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평화와 협상을 기대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 때문이다.

1)정치적 이유: 아프가니스탄의 아슈라프 가니(Ashraf Ghani) 대통령의 기본 정책은 불안정하며, 최고경영자인 압둘라 압둘라(Abdullah Abdullah)와의 관계는 한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9월 파기된 2년간의 단일정부 협정은 둘 사이의 관계를 더욱 틀어지는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2)경제적 이유: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수익은 총 예산의 29%로 빈약하다. 이것은 앞으로도 아프간 정부가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을 의미한다.

3)군사적 이유: 적어도 1/3에 해당되는 아프가니스탄 영토가 내란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반군의 공격이 증가할 것이고, 나라 전역에 걸쳐 더 많은 지역이 반군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다.

4)지정학적 이유: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전반적인 해결책은 파키스탄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16년 6월 들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파기스탄 정부가 현재 자국에 머물고 있는 300만 명에 달하는 아프간 난민들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되돌려 보낼 것을 엄포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압도시키는 사건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부패와 테러단체의 자금줄인 아편 생산 증가로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추가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도 기독교박해 보고기간과 달리 올해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다. 인간적인 견해로 볼 때, 개선된 상황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기독교 소수집단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박해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

▪ 아프가니스탄의 근대 변천사

1996년 탈레반(Taliban)에 의해 수도 카불(Kabul)이 장악됐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탈레반 세력이 축출되기 전인 2001년까지 이슬람식 샤리아(Sharia) 법을 시행했다. 2004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하미드 카르자이(Hamid Karzai)가 첫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2005년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선거가 치러졌다. 2014년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군은 공식적으로 전투 임무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했다.

2014년 치러진 선거는 정치적 교착상태에 빠지게 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전 외무부 장관이자 타지크족(Tajik) 출신인 압둘라 압둘라(Abdullah Abdullah)로 예견되었지만, 그는 선거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아시라프 가니(Ashraf Ghani)를 새로운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압둘라는 아프가니스탄의 최고행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런 관직은 아프가니스탄 헌법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아프가니스탄의 종교 상황

인구의 99%가 무슬림인 아프가니스탄에는 국제연합군, 외교관, 비정부단체(NGO) 근로자들 외에 공식적인 기독교인이 없다. 아프가니스탄의 토착 기독교인 대부분이 무슬림배경신자(MBBs)들이며, 이들은 가능한 숨죽여 생활하고 있다.

무슬림 중 90%가 수니파(Sunni) 이슬람교도인 반면 9.7%가 시아파(Shiite)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다. 하자라(Hazara)족 대부분이 시아파 이슬람교도들인 반면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큰 민족인 파슈투(Pashtu)족은 수니파 이슬람교들이다. 이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정치를 장악하고 있지만 일부 우즈벡(Uzbeks)과 타지크족(Tajiks)과 같은 소수민족 역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적은 수의 시크교(Sikh), 힌두교(Hindu), 바하이교(Bahai)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기독교보다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이 소수종교인들은 외국이나 서구세력으로 인식되지 않는 이점을 갖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국가(IS) 조직의 형태를 띤 극단적 이슬람 과격단체들의 유입으로 안보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슬람 급진주의단체 탈레반은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으며, 몇 년 전보다 더 많은 지역과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다.

〈오픈도어〉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714)521-0991, Fax(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Fax.(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213)388-7101 ,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62)691-0691, (F)(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x(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csc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 은 이 예배 : 오후 1:20
영어권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30
주일3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새 벽 기도회: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Fax.(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www.d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4:0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pcla.org
Tel.(213)381-2202, Fax.(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E-mail: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 이영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아동부/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성경공부(목요일)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Tel.(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213)245-4090 Fax.(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949)857-9425 / Fax.(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젊은이예배: 오후 6:00
Tel.(213)384-7274, Fax(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www.gracemi.com
Tel.(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Fax(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Fax(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jc.org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714)646-9259 Fax.(714)646-9264
16800 Im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tv.com / e-mail:pastor@lacornerstone.com
Tel.(310)530-4040(CH), Fax(310)530-84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장년, 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인/터/뷰 린디 박 대표

아웃도어 제품 Caravan Canopy 창사 18년

새롭게 한인사회에 탄생된 교회휴대용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점 Caravan Canopy의 린디 박 대표가 8일 오후 본사를 방문했다.

이미 미주사회에서 아웃도어 제품회사로 꼽히고 있는 Caravan Canopy는 창사 18년을 맞고 있다. 처음에는 천막을 수입, 가공해 파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천막이 단순한 레저용 제품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로도 만들어졌고 더 나아가 천막제품에 로고를 새기다보니 자연스럽게 프린팅 부분까지 확장됐다.

그런 린디 대표가 한인 사회로 눈을 돌리고 한인교계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린디 대표에게 직접 들어보았다.

린디박 대표(중앙)가 직접 작업장을 둘러보며 제품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한인 위한 새 사업 시작....최고의 품질로 고객요구 맞춘 가격 창출이 과제
어머니에게 찾아온 난소암... 모녀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 돼

두 살 때 부모를 따라 이민 온 린디씨. 그는 미주사회에서 27살의 젊은 나이에 사업가로 변신했다. 사업은 나날이 성장했고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삶이 감사했고 기쁨도 있었다.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한 삶이었다. 적어도 2003년 그의 어머니에게 내려진 난소암 말기 판정을 받기까지는 그의 삶의 주인은 자신이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1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의사의 판정은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이었다. 그러나 그 절망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린디 씨도 어머니도 함께 만나고 영접했다. 어머니의 암 판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었고 1년밖에 안 남았다는 어머니의 생명을 주님은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모녀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다.

린디 씨는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훈련받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은 부족함 없이 잘 진행되어지는 것 같았지만 개척교회나 미자립 교회들 역시 필요한 것은 많고 해야 할 일도 있는데 쉽게 채워지지 않는 어려움을 보게 됐다.

그는 자신이 먼저 작은 교회인 예친교회(담임 김민재 목사)로 옮겼다. 그리고 그의 사업을 통해 한인사회와 교회에 어떻게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 결국 새로운 사업 파트를 신설했다.

그동안 Caravan Canopy를 통해 얻어진 많은 노하우들을 한인사회에 환원해야겠다는 마음과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자하는 마음이 컸다. 그가 시작한 새로운 사업은 한인교회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일이었다.

린디 박 대표(좌측)가 제품을 보며 직원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우선 배너와 벽걸이 포스터, X배너 거치대, 미디어 벽 등 교회가 필요한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나 교회의 요청은 배너뿐만 아니라 티셔츠나 트로피 등 교회가 필요로 하는 상품들을 한곳에서 쉽게 구입하기를 원했다. 그러한 요구들을 최선을 다해 채워주고 픈 것이 박 대표의 마음이다.

그러나 박 대표에게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고 한다. 그건 이미 그가 해오던 사업의 모토처럼 동일하게 최고의 품질로 한인들의 요구에 맞는 가격을 창출해내야 하는 과제라고 한다.

"물론 새로운 이 사업도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 이익금으로 또 다른 섬김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비즈니스로만 생각하면 가격을 맞출 수가 없지요. 비즈니스보다는 먼저 좋은 것을 싸게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숙제로 안고 하나님의 은혜로 런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고 따뜻한 섬김의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린디씨의 메인 비즈니스 Caravan Canopy는 미주뿐 아니라 캐나다와 한국, 중국에도 지사를 두고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업체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출시되는 제품들은 월마트나 코스코, 홈디포 등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877)922-6679로 문의하면 되고 한국어는 (714)367-3046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투고 칼럼

박상원 목사
(기드온동족선교회, G.B.M.W 대표)

두려워하는 핵미사일, 두려움 없는 지하성도들

최근 그 어느 때보다 북정권의 위협이 세차다. 실로 우리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습은 아님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상황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고 한숨만 지어야 하는가?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하나님의 방법과 길이 있음을 알리고 기도해야 할 때다.

그동안 많은 대북선교단체들과 한국교회들과 미주의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이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발휘하여 중국과 제 3국의 국경일대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 안으로 들어가 돕다가 체포되고 감금되기까지 하면서 북녘의 동족들을 도왔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노력들과 현실적인 대안들과 대화의 테이블로 불러낸다 하더라도, 한 쪽에서 전쟁을 낸다거나 절반이상이 넘는 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계속 무관심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통일은 그저 순진한 바램이며 뜬 구름과 같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통일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은 무력에 올인하고 있는 저들에게도 원인이 있지만, 오히려 통일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없는 마음들과, 북녘동족들이 72년 넘게 고난 받고 있는 아픔을 외면하는 사랑의 부재요, 긴 세월 상처받은 가족들에 대한 치유가 없고, 전 세계와 역사에 선언할 우리민족의 존재가치와 사명이 없음이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든다.

만약, 지금이라도 수천만의 국민들이 통일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외친다면, 월드컵 4강하듯,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것은 전체적인 합일된 의지와 공동의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90년초) 구소련을 무너뜨린 것도 철권무력이 아니라, 자유와 진리를 알려주려 했던 용기 있는 소수 사람들의 행동이었다.

그것은 소련 사람들이 그간 몰랐던 외부의 진실 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 작고 작은 팩스밀리기 몇십대(지금으로는 핸드폰)가 많은 소련국민들의 전체 마음을 움직이는 소중한 역할을 해냈기에 탱크에 두려움 없이 맨몸으로 맞선 주민들이 결국 70년 된 소련연방을 해체시켰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진실의 소리와 자유의 목마름은 총으로도 핵무기로도 통제할 수 없다.

핵미사일 발사로 어수선하고 혼란한 이때에 참 놀랍게도 70여년 기나긴 분단의 아픔을 참아내며 생명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북녘의 지하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유트브 동영상: 70년 견딘 성경책...북한 지하교회 확산-TV조선 뉴스)이 매우 고무적이다. 틈만 나면 인권을 찾고 민주를 부르짖는 그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은 북녘의 동족들이 수십 년을 격고 있는 인권탄압과 부자유에는 아무 반응이 없고 대신 나서줄 동족애가 없는지 참으로 묘하고, 실망스러울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민족의 장래를 축복된 통일로 준비할 사람들만이라도 전쟁과 가난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쌓아온 우리들의 소중한 자유와 생명의 이야기들과 그리고, 70여년 넘게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 두려움도 견뎌낸 북녘지하 성도들의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영상으로 재결합을 이루어 SNS 등을 통해서 북녘과 세계에 보내는 일이야말로 핵미사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겨레의 생명구원과 복된 통일을 이루어낼 것이리라.

이러한 우리들의 복음 안에서의 통일각성과 준비 그리고 북녘주민들의 자유의 발견과 결심은 이미 통일의 환희와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에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 오히려 핵을 장착한 미사일이 더 두려울 것이다. 지금이라도 핵무기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참 진리와 영혼의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바랄 뿐이다.

통일은 무력과 주체사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만으로 가능하다. 주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마 10:28)고 말씀하셨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요일4;18)라고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신다.

통일에게 곰곰이 물어보라, 누가 더 통일에 적합한가? 생명을 파괴하는 미사일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주의 백성들일까? 지금부터 북한 지하성도들의 순교이야기와 주민들의 참상을 알리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성이며 역사적 예수님의 실현이다. 주님의 백성들아, 주님으로 인해 고난 받는 내 동족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고 외쳐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주의 영광이라"

swp21c2002@gmail.com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과 나눔 실천한다!

〈1면에서 계속〉

한마디로, 온 미국이 감사 분위기에 젖어 넉넉한 날이 된다. 단순하게 추수감사절은 교회만의 잔치가 아닌, 모두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하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받고 지켜가야 할 전통은 추수감사절이란 축제의 형식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청교도들의 신앙이어야 한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으며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고 나눔과 섬김의 실천으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진정한 감사는 풍성한 나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현재 누리며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도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혼자 누리기보다는 우리주변의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추수감사주일이 돼야 한다.

올해도 이제 한 달 반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불우한 이웃을 돕자는 운동들이 각계에서 활발하게 펼쳐진다. 자선모금 행사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과 먹거리도 나누는 일들을 전개한다.

2017년 추수감사절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세상에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주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감사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을 외롭고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눔으로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으로 넉넉해지는 감사절이 되게 하자.

〈편집부〉

최고의 에제르가 되다 (31)

이희숙 사모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사모는 목사님의 내조자요 돕는 배필인 '에제르'이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다 해도 목사님의 아내인 사모의 위치를 대치할 자는 하나도 없다...그러므로 사모는 스스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딸, 목사님의 훌륭한 에제르"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4) 시간을 잘 지키는 훈련

철저한 시간관념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이다 예배, 회의, 약속이 있을 때에 늦지 말아야 한다.

필자의 남편 목사가 휴스턴한인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의 일이다.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성도들이 삼분지 일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만일 당신들이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면 늦게 가겠는가? 아니면 미리 가서 기다리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도 미리 가서 기다리는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늦게 오면 되겠는가? 다음 주일부터는 한 명이 와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포하셨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찬양대 지휘자가 찬양대원들과 함께 제 시간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다. 한 번 더 연습해서 은혜스런 찬양을 부르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래서 목사님은 몇 번 경고를 하였다. 한 번은 찬양대원들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정시에 예배를 시작했고 늦게 들어온 찬양대원들은 강단 뒤 찬양 대석에 앉지도 못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회중석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 그 후로는 찬양대원들이 한 번도 늦지 않고 항상 미리 찬양대석에 앉아서 예배드릴 준비를 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드릴 준비를 하며 기다리는 훈련이 잘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한국에 계신 시어머님께서 필자의 가정을 방문하신 중에 일어난 일이다 남편 목사가 구역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집에서 몇 시에 떠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아 제 시간에 떠나지 못했다. 한번은 식구들에게 경고를 주셨다. 만일 시간 안에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목사님 혼자서 떠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떠나야할 시간에 식구들이 또 준비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설마 식구들을 두고 목사님이 혼자 떠나겠는가 하고 좀 늦게 차고에 나가보니 놀랍게도 남편 목사는 가족들을 집에 남겨두고 혼자 차를 타고 구역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떠나버리셨다. 그 후로 필자는 집에서 떠난다는 약속 시간보다 항상 15분 앞당겨서 준비하고 식구들과 차에 가서 미리 기다리는 철저한 훈련을 받았다.

필자의 남편 목사는 시간 약속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우리 이 목사님은 시간을 칼 같이 지키는 분'이라고 성도들이 인정할 정도였다, 그래서 구역예배 때 가보면 목사 가정이 제일 먼저 가서 30분정도 늘 기다려야 구역 식구들이 모여들었다. 그런데 한번은 구역예배에 갔더니 구역 식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너무 놀라 "야, 이 구역식구들은 시간을 잘 지키는 모범 구역"이라고 칭찬을 했다. 그랬더니 "항상 목사님이 정시에 오셔서 기다리시는 것이 죄송해서 구역 식구들에게는 7시까지 오라고 했고 목사님은 시간을 정확히 지키시니까 7시 30분까지 오시라고 했어요"하는 것이었다. 구역장이 지혜롭게 시간 조정을 잘해서 그 구역에 가서는 목사님이 기다리지 않고 항상 제 시간에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다.

약속시간에 혹시 늦을 경우는 반드시 미리 전화 연락을 해서 상대방에게 꼭 알려주어야 한다. 교인들은 혹시 늦는다 해도 지도자들은 절대로 늦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시간을 잘 지키지 않으면 신뢰성과 책임이 없는 지도자상을 심어줄 뿐 아니라 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교회 부흥집회에 가서 저녁식사 초대를 받아 식당으로 갔다. 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을 보고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항상 늦으세요!"하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

필자가 휴스턴에서 신학교 다닐 때 많은 경우에 신학교 강사님들이 시간이 늦어서 헐레벌떡 하며 강의하러 들어오시면서 "죄송합니다" 하셨다. 그분들은 종종 강의 시간에 늦은 것에 대하여 자기의 부인인 사모님을 원망하셨다. 사모는 철저한 시간관념을 가지고 예배시간, 회의시가, 약속 시간 등에 늦지 않도록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목사님이 약속시간에 늦지 않도록 잘 챙겨 드려야 한다.

5) 먼저 반갑게 인사를 잘하는 훈련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고 인사를 먼저 해주면 좋아한다. 사모는 수많은 교인들을 만나야 한다. 사모도 인간이기에 때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반갑게 인사하지만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반갑게 인사하지 않는 누를 범하기 쉽다.

필자는 목회 초창기에 목사를 교회의 주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마땅히 목사와 사모에게 먼저 와서 인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으레 교인이 먼저 인사를 하면 받았지만 사모가 먼저 가서 인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모가 교만하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주님의 사랑과 섬기는 자세로 먼저 찾아가서 반갑게 인사했다. 성도들이 기뻐하며 "사모가 없으면 교회가 허전하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보았다.

필자의 시어머님께서 잠시 우리 가족과 함께 살고 계셨을 때 일이다 주일에 교회에 가서 성도가 오는 것을 보면 먼저 찾아가셔서 붙들고 반가워하셨다. 그 이유를 물어 보았더니 자신은 매일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주일 날 그들을 보면 너무나 반갑고 사랑스러워서 달려가 인사한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필자가 은혜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에 은혜를 받고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다 보니 필자의 마음도 그렇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6)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의 훈련

사모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잘난 체하는 사람을 싫어하며 특별히 사모가 교만하면 목사님의 목회에 큰 마이너스를 가져온다. 겸손은 사모의 생명이요 신앙인격의 금자탑이다.

왕이신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오셨음을 본받아 늘 섬기는 자세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 한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한 성 어거스틴의 말을 명심하여 사모는 말과 행동에 겸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온다. 가난하고 학벌이 없고 사회에서 자격지심속에 살다가 교회에까지 와서 차별대우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결국 교회를 떠나기까지 한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훈련을 잘 받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에 대하여 생기는 시기나 질투심에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

7) 긍정적인 자화상을 갖는 자신의 훈련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사모는 목사님의 내조자요 돕는 배필인 '에제르'이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다 해도 목사님의 아내인 사모의 위치를 대치할 자는 하나도 없다. 사모의 위치는 대단한 위치이다. 한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의 영부인과도 같은 위치이다. 그러므로 사모는 스스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딸, 목사님의 훌륭한 에제르"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필자는 남편 목사님과 매일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려고 거울 앞에서 서서 거울에 나타난 자신을 향하여 큰 소리로 선포한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이희숙 사모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단10:19)

hslee39@sbcglobal.net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종이 가질 제일의 관심(고전4:1-2)찬510장

사도는 여기서 교회의 분쟁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종의 도를 상실했기 때문에 종의 도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곧 종이 행할 주된 사역이 무엇임을 가르칩니까? 첫째, 신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람이 불러 시켰다는 생각부터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마침내 어두움에 나갑니다. 둘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삶은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위해 살며 전파할 사명을 가집니다. 이것을 등한히 여김으로 인간을 높이는 자리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신자는 복음전파에 충실해야합니다. 복음에 자기를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일의 목표이며 삶의 중심이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고전4:3-5)찬257장

사람관계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월권이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교회가 이 길을 걷는 것은 징계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떠난 자기성찰은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3). 불교의 불공이나 힌두교의 요가, 관상기도는 이런 범주에 속하기 쉽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일은 그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주님께서도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 앞에 행하고 사람 앞에 행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마6:6). 셋째,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심판대에서 서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 땅에 있을 동안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하심은 하나님 권위에 대한 겸손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가 판단 받는 원리는 교회의 원리가 돼야합니다.

수 기록된 말씀의 기준(고전4:6-8)찬235장

사도는 분쟁의 원인이 기록된 말씀을 넘어섬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스도가 남긴 성경은 교회의 절대지침이지 상대지침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을 떠나면 그 때부터 온갖 죄악이 일어납니다. 첫째, 교회의 본을 무시하게 됩니다(6).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을 따르는 본들입니다. 오늘날 남은 은사인 목사와 교사를 무시함은 성경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말씀을 벗어날 때 교만해집니다(6). 그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나라의 은혜를 알 수 없고 인간나라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교회가 지도자를 자랑함이 결국 자기자랑에 이용한 것입니다. 셋째, 마침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진노의 자리를 오가다 저주에 떨어집니다(8). 교회는 자기자랑을 극복해야 분쟁을 이깁니다.

목 사도의 본(고전4:9-13)찬88장

교회생활에 주님의 본은 사도의 본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바울은 고개를 들고 자기자랑에 취해 있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 사도의 본을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첫째, 사도는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9). 육체적 긴장, 사회적 긴장, 그리고 영적 긴장이 그를 항상 사로잡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둘째, 교회를 부요케 하려고 사도는 온갖 고난 곧,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10-12).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궁핍을 가진 자로 살았고 박해와 비방으로 만물의 찌끼같이 보였습니다. 이런 사도의 수고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든 일에 늘 기억하며 그 길을 가야합니다. 셋째, 그 모든 고난이 오직 그의 말씀순종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13). 성경을 모든 언행심사의 기초가 되게 합시다.

금 사도가 보인 최상의 길(고전4:14-17)찬278장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는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도의 생각과 삶이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사도는 그 길을 보였습니까? 첫째, 교회를 아버지 심정으로 사랑했습니다(14). 사도의 권면은 사랑하는 자녀를 권면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사랑은 교회가 세상을 사랑할 때 나타내어야 할 요소입니다. 둘째, 그는 어머니처럼 양육했습니다(15). 복음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고 주안에 기르는 진액을 쏟는 수고를 드렸습니다. 셋째, 그는 큰 스승처럼 삶의 본을 보였습니다(16). 교회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인 의, 인, 신을 나타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의 본을 통해 표현됐고 그 형상을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합니다.

토 하나님 나라의 실상(고전4:17-21)찬470장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하나님나라에 역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사도는 하나님나라의 실상을 설명합니다. 그 나라의 특색은 무엇입니까? 첫째, 겸손으로 충만합니다(18). 인간 자랑으로 가득 찬 곳은 이미 타락한 증거입니다. 둘째, 능력으로 충만합니다(19-20). 그 능력은 인간에서 나온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모든 근거를 그의 말씀에 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며 그 능력의 원천을 오직 기록된 말씀에 두게 했습니다. 셋째,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21). 기계적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 유기적 사랑이 지배할 때 최상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가 명하신 좁은 길이지만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누리는 최상의 길입니다.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Fax.(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아, 유치, 유년예배: 오전 10:45
중,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Fax.(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702)749-9929, Fax.(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ijkc.org
Tel.(804)560-7500, Fax.(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cr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Fax.(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김홍석목사
244-97 St. 61Ave.
Little Neck, NY 11362
Tel. (718)279-1414
nyckcg.org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2017년 4월 16일(주)
5시 45분 - 7시 10분
Teaneck Armory, NJ
(1799 Teaneck Rd.
Teaneck, NJ 07666)
Tel. (551)257-5001
뉴저지지한인교회협의회
회장: 김종국목사

세계한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김순관목사
Tel.(808)542-2922
www.ikccah.org

필라델피아교회협의회
회장: 김영천목사
4 Elm Dr.
Lansdale, PA 19446
Tel.(215)917-3315
www.ckcgp.org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나성세계로교회
담임목사: 임지석
300 S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20
Tel. (213)219-9229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12
Tel.(562)691-0691
Fax.(562)691-0698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12-25 Clintonville St.
Whitheston NY11357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흥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718)224-1993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
Tel. (702)749-9909
Fax. (702)478-7224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37-57 104St.
Flushing, NY 11368
Tel. (718)961-2171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3165 St. Johne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풍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빛과소금의교회
담임목사 : 장요셉
1864 Precinct Line Rd.
Hurst, TX 76054
Tel. (817)427-1020
Fax.(817)427-0110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브르크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빛과 소금의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21519 S. Menlo Ave.
Torarnce CA 90502
Tel.(310)749-0577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Cell.(704)877-6642
Tel.(704)529-0900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은일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Tel.(206)527-0981
Fax.(206)524-1746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949)857-9425
Fax.(949)857-9472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Tel.(213)384-7274
Fax.(213)384-8638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Tel. (718)672-1150
Fax.(718)672-1151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필라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 조진모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Tel. (215)927-0630
Fax.(215)927-0643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일구
2122 Metcalf St.,
Hon., HI 96822
Tel. (808)947-5252
Fax.(808)947-5151